



# 문화+서울 시그널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0월의 문화+서울

오감이 행복한 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EMERGING SPACE

한국영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는다

CULTURAL WALKS IN SEOUL

아스라한 어제, 오늘을 표표히 흐른다

2008 10





#### COVER STORY

도시는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진다.  
 하지만 사람들의 터전은 도시의 발달로 밀려나고  
 원래 살던 동네는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작은 골목길에는 아직도 그들의  
 땀과 숨결이 배어있고 맑은 에너지가 넘실댄다.  
 발달된 도시의 직선과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는 곡선,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 도시의 조화가 빛난다.  
 서울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일 72개 축제들의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의 무대처럼.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08년 10월 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lac.or.kr  
 디자인·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TEL 02)2264-5298 스튜디오 Seouleye TEL 02)543-5257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있는 문화육구와 정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contents

October 2008



06 IMAGE ESSAY

**내겐 내가 있는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08 COLUMN

**진정한 문화예술 지원을 바라며**

## 10월의 문화+서울

10

**오감이 행복한 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Preview

12

**머리와 가슴 속의 난장**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5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무용축제** 서울세계무용축제

18

**참여하면 더욱 즐거운 미디어아트**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21

**청계천은 꿈을 끈다** 축제의 일상화, 예술의 대중화를 꿈꾸는 2008 청계천예술축제

## 지금 서울은

28 HOT SKETCH

**인디와 비(非)인디가 벌인 음악 수다 한판** 영상음악토크쇼 '음악에 세계 말 걸기'

34

**인간, 연극이 그것을 설명해야 할 때** 한국연극무대를 물들인 제중영풍

38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고궁유지컬 '대장금'

41

**문화예술로 인생의 제 2막을 열다** 2008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43

**박물관 문턱 낮추기** 박물관은 살아있다 도봉숲 참여 후기

46 EMERGING SPACE

**한국영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는다** 한국영화박물관

50 기업+문화

**시민, 사회 그리고 문화와 함께 숨 쉬는 기업 -우리는행** 우리은행 이종취 은행장 인터뷰

## 다시 보는 서울

56 SEOUL SCOPE

**모던보이, 경성 카페에 가다** 1930년 경성의 카페문화

60 CULTURAL WALKS IN SEOUL

**아스라한 어제, 오늘을 표표히 흐르다** 중구 회현동

## 서울 내일의 얼굴

68 FOCUS INTERVIEW

**한글에 감성을 입히다** 캘리그래퍼 강병인

74 YOUNG ARTIST 2008

**도시풍경, 그 실상과 가상의 충돌** 나형민

80 한 장의 썬포

**소설가 권지예의 '서울을 말한다'**

84 재단사업

**마음 속 분향을 찾는 특별한 산책** 유경희의 '미술관 산책' 이야기

88

**내밀한 창작공간의 문을 열다** 이정훈의 '렛츠 고! 아틀리에'

90 문화 캘린더

**10월의 재단행사 및 공연일정**

92 재단 소식

97 독자엽서



Monthly magazine Culture+Seoul publish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ould like to bridge between artist's creativity and the public's everyday life. It communicates with the city's hidden cultural aspiration and information.

No articles or photographs on the Culture+Seoul are granted to use without permission of Seoul Foundations for Arts and Culture. Articles on the Culture+Seoul is all based upon every author's personal opinion.



## Hi-Seoul Festival 2008 Autumn

'Hi-Seoul Festival 2008 Autumn' gathers and introduces 72 festivals scattered in Seoul so far. Starting with the opening performance on October 3rd, the festival will be held all over the city for 23 days until October 25th. It will inbreathe enthusiasm and delight into the lives of citizens. During the period, various events will be held including 'Cheonggye Echo Fun Fashion Show', a combination of mime and fashion, 'Hi Seoul Concert' with famous singers, 'Seoul Musical Festival', a musical gala show, etc. 'Hi Seoul Festival Information Center' will be set up to provide information of 72 festivals and tour buses wrapped up with maple and ginkgo leaves of various colors will be operated. Information and tour buses will serve as convenient hands and legs for citiz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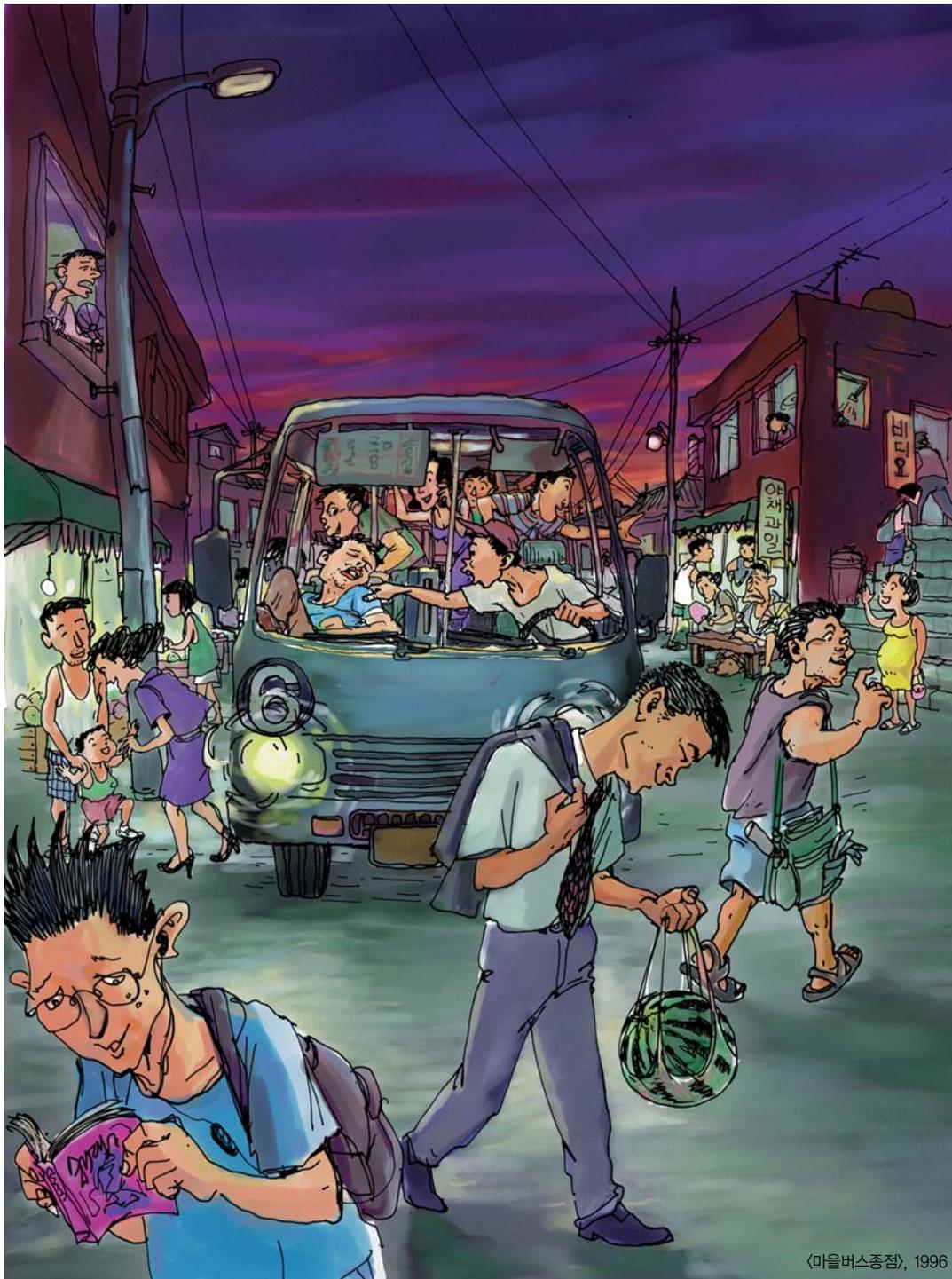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 The 8th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hopes to look at the world and become a gate toward the world through performing arts. In 2008, 39 organizations in 13 countries have been invited to perform 38 plays, dances, and musicals. Korean plays such as 'A Festival of Spring' by EunMi An, 'Don Quixote –Human Enthusiasm' by Theatre Momggol will be on stage as well as overseas plays including 'Neva' by Chile Teatro En El Blanco, 'Spy on a Woman Who Kills Herself' by Argentine Proyecto Chejov.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which has positioned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y picking out rookies, involv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sharing feelings with audience, invites audiences with new performances in 2008. Notable performances are 'Electra, the very murderer of her own mother' by Greek Roes and 'Kisaeng Becomes You', jointly produced by Korean YunJin Kim and American Dean Moss.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 The 5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will be held at Seoul Museum of Art for 55 days from September 12th. This biennale is throwing questions about the identity of media art and finding answers for those questions through art works. Seventy seven works by artists from 26 countries in 5 continents will be exhibited.

**Cheonggye Art Festival** – The 3rd Cheonggye Art Festival hopes to present not only comfort and relaxation but also 'artistic experiences' to citizens. The festival with three key words, light, water, and breath, will take the lead in popularizing art by bringing Seoul citizens, merchants and residents in Cheonggye area, and artists together.





〈마을버스종점〉, 1996

내겐 내가 있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최호철 \_ 홍익대 미술대 회화과 졸업,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

- 2000 서남미술전시관에서 개인전
- 2005. 11 The Pantagruel Syndrome, Torino Triennale Tremusei, Torino
- 2006 한국일본중국아시아현대미술전(ALL LOOK SAME?) -torino Italy
- 2006 Infinite Painting Contemporary Painting and Global Realism, Villa Manin Center for Contemporary Art, Codroipo
- 2006-2007 아시아의 지금 전 Asia art now -쌘지스페이스, 대안공간루프, 북경 2007. 11 태일이 1,2권 출간 (둘베개)
- 2008. 8 장편만화태일이 3권 출간(둘베개) 2007. 11 태일이 1,2권 출간 (둘베개)

새 정부가 문예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예술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변화를 논했다. 세밀한 진단에 의한 정확한 처방, 무엇보다도 실천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 현장의 새로운 움직임에 기대해본다.

진정한 문화예술  
지원을 바라며

화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일반 경제와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일반 경제 원칙에 맡겨놓아도 능히 유지가 된다면 국가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을 무한 자유경쟁에 맡긴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에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전신인 문예진흥원의 역사를 합치면 35년에 이른다. 적어도 35년 동안은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지원이 있었건만 우리의 문화예술계는 늘 부족함을 호소한다.

즉 기관은 지원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술 현장은 계속 힘들어하며 지원 신청서를 쏟아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거의 모든 예술단체들이 신청서를 내고 그 서류 정리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 지원대상을 가려내는 이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새 정부가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역시 문예지원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이다. 사실 소재다건 지원이 비난받으며 '선택과 집중'의 방향을 지향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다. 또 인프라 차원의 '간접지원' 과, 서류 심사의 한계를 염두에 둔 '사후지원', 그리고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방법으로 '생활 속의 예술' 도 이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던 터이다.

그렇다면 이미 오래된 정책을 다시 내놓은 셈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간 성과가 미미하다면 다시 한 번 그것을 천명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건 세밀한 진단에 의한 정확한 처방이다. 어떤 자동차의 생산을 공인한 뒤 모양만 자동차일 뿐 정작 움직이지 못하는 무용지물을 만들어놓고 움직인다고 우기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내세우는 정책과 함께 그것을 행하는 기본자세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공모제 중심이 아닌 '기성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찾아

서 지원하기' 가 되어야 한다. 물론 신청을 받을 수도 있으나 지원기관의 제안에 대해 동의 표명만 있어도 되는 정도가 좋다. 그 이후 해당 단체나 개인, 또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은 지원기관이 맡아야 한다.

두 번째는 '맞춰서 지원하기' 이다. 최근 컨설팅 지원이나 인적네트워킹 지원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예산 지원에만 한정된 형태이다. 즉 거의 모든 것을 갖춘 대상에게 부족한 일부를 채워주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극히 일부만 가진 대상에게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지원 형태도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객이 들 수 있는 상업적 작품이라면 용자 또는 투자 유치나 홍보 마케팅 지원이 알맞을 것이다. 이에 비해 예술성은 있지만 관객이 쉽게 선택하지 않을 작품이라면 관람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외국 작품 저작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고 인적 정보력이 약하면 그것을 도와줄 일이다.

그런데 기성에 대한 지원에는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예술지원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 공평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예술은 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정확해야 하며, 그에 따라 대접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지원기관은 물론 예술인 스스로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세 번째는 신진에 대한 '무조건 지원' 이다. 기성과 달리 신진 예술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에는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신청하면 일단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일정 기간 후에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단히 엄격하고 일생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될 평가라면 '무조건' 의 위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성공은 이런 기본자세를 지니고 최대한 세밀한 실천을 할 때 가능하다. 이번 정부의 예술정책은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희망한다. 

글 오세근(순천향대 공연영상미디어학부 교수)

# 예술

# 오감이 행복한 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 -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Preview

10월, 축제의 물결이 또 한 번 서울을 뒤덮는다.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축제들의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가 꾸민 한 상을 차려놓고 시민들을 기다린다.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다양한 볼거리와 굵직굵직한 공연무대가 줄을 잇는 가운데, 72개 축제들의 행복한 만남은 시작됐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2008년 서울의 가을은 분명 책만 읽기에 아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는 그 동안 서울에서 뿔뿔이 흩어져 이루어지던 축제 72개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10월 3일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23일간 서울 전역에서 열릴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열정과 환희를 불어넣을 것이다.

다채로운 볼거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 공연은 10월 3일에서 6일까지 나흘간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3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과 피아니스트 임동민, 발레리나 김지영, 김주원과 국립발레단 단원 그리고 고소프라노 신영옥의 공연을 시작으로, 4일 '청계천에코편패션쇼'라는 마임과 패션을 혼합한 무대가 청계광장에 오르며, 5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실력 있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하이서울콘서트'가 저녁 7시반(단, 개막일(3일)은 6시 반 진행)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일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유명 뮤지컬 20개 작품을 총망라한 뮤지컬 갈라쇼,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다.

72개나 되는 축제를 모두 찾아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축제 기간 중 매 주말 저녁에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주요 문화예술 축제의 쇼케이스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축제기간 중에는 72개의 축제 정보를 총집결한 '하이서울축제 정보센터'가 운영 되어 시민들의 정보 사냥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하이서울축제 정보센터'는 시민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그 자체가 이번 축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하여 밤에는 화려하고 멋진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하이서울축제 정보센터'의 모습이 사뭇 궁금하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72개의 축제를 장소, 일자, 시간별로 분류하여 시민들이 기호에 맞는 축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한 축제프로그램북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가 한 자리에 모인 '하이서울축제 정보센터', 이번 축제의 숨은 허브로서 시민들의 친절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가하면 오색 단풍잎 축제버스는 흥겨운 분위기를 서울 곳곳에 전파할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독특한 복장을 한 도우미, '축제요정'의 즉석 퍼포먼스도 놓치지 말길 바란다. 한편, 25일 진행되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그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어떤 축제들이 참여할까. 공연예술분야에서는 타악공연과 타악 아트마켓의 장인 '서울드럼페스티벌'을 비롯해, 아시아 공연의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서울의 상징,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세계무용축제', 세계 각국의 대표작을 공연하는 국제 교류의 장,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등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포진해 있다. 시각분야에도 만만찮은 축제들이 줄을 선다. 세계 디자인 수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필두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술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미술관을 벗어나 온몸으로 미술을 즐겨보는 '청계천 예술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올 가을 시민들의 눈이 행복해진다.

이번 호에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에 굵직한 도장을 찍을 축제 네 개를 자세히 소개한다. 2008년 가을, 서울을 들뜨게 만들 대표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글/정리 전지영 기자

| 축제 주요일정 |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메인 행사	개막식	Festival in Festival								Festival in Festival								Festival in Festival				Festival in Festival	폐막식				
축제정보센터(대학로 및서울광장 상시 운영)																											
도심권	서울 국제 공연 예술제(09.18~10.19)																							김치사랑페스티벌			
					서울아트마켓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09.5~10.30)																		
	청계천예술축제			아시아무대예술제				OFF 대학로 페스티벌(10.13~12.09)																			
	세계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09.12~11.05)																										
	대학로페스티벌 D.FESTA [홍미진진]									서울무용제(10.13~11.02)																	
	서울 거리 예술축제									새문길 박물관 축제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10.22~10.28)											
	청계천 생태 축제															남산축제											
	정동문화축제		과거제 재현행사		장충단 추모제		훈민정음 반포재현 행사				고종 명성 후기대																
	한글주간행사															이태원지구촌축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축제(09.20~10.18)																							황학동 중앙시장 주방기구·가구거리한마음축제			
강서권	아시아송 페스티벌									원드림 월드뮤직 페스티벌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											
	세계한강 출타기 대회															5678 서울도시철도 가을문화축제											
	세계불꽃축제																										
	대한민국 라이브뮤직페스티벌																										
	은평파빌축제									의성 허준축제																	
	거리미술전									서울역세축제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낙성대 인한제		공민왕 사당제										
					가을에 권 사랑 big 콘서트						가을에 권 사랑 big 콘서트		가을에 권 사랑 big 콘서트		창의아이디어페스티벌												
	물레아트페스티벌(10.01~11.01)																										
											아리수한 마음축제		로대오 패션거리 축제		찾아가는 가을 음악회												
											서대문신촌어울림축제																
강동권	서울 드림 페스티벌									서울 디자인 율리픽 2008(10.10~10.30)																	
	쌈지 사운드페스티벌																										
					성동도서관문화 페스티벌			아차산 고구려 축제																			
							강동선사문화축제																				
									시민문화 한마당															시민문화 한마당			
강북권	삼각산 축제		트릭예술무대													청룡 문화제											
					서울 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				주민자치센터경연/전시회																		
					서울 약령시 한의학축제																						
										중랑문화예술축제																	
한글상상 2008 : 한글손글씨, 거리를 물들이다																											
강남권					한국음식대전				제11회 서울세계무용축제(10.10~10.30)																		
	마니프 서울국제 아트페어								서울 국제 문화 사진 아트페어 2008															2008 서울 한류 페스티벌			
					서울 국제 음식 산업 박람회				KOREA FOOD EXPO 2008										범음악제								
					사육신 추모 문화제																장승배기 장승제						

예술회관 예술축제 지역축제



체홉의 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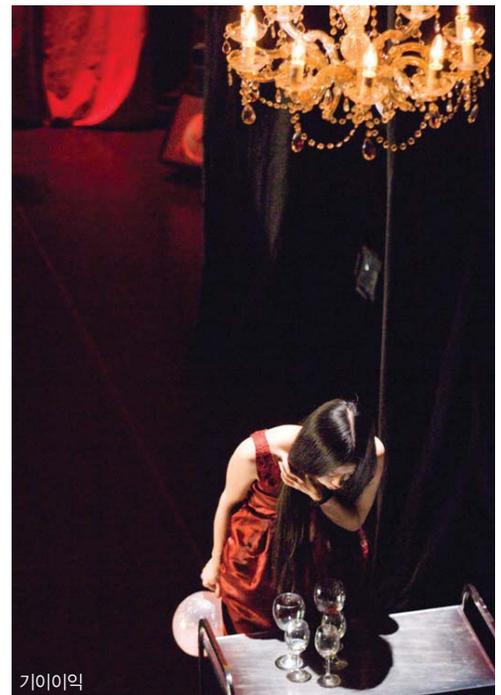
바나아저씨

# 머리와 가슴 속의 난장

##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축제'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잔치 한마당이 벌어지고 술과 음식 등의 먹거리와 볼거리와 사람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연상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떠들고 흔들고 마시면서 시끌벅적하게 즐기는 외적이고 동적인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공연장 안에서 무대 위의 공연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치고 충격과 감동은 전율이 되어 우리의 온몸을 흔들어 대는 축제도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는 동서양의 문화와 철학, 연극과 무용과 음악, 과거와 현재, 미래가 무대 위에서 충돌하고 소통함으로써 새롭고 아름다운 예술이 꽃 피는 장이다. 관객들은 그들로부터 받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 전율 속에서 새로운 도발과 불운을 꿈꾼다. 머릿속에서 마시고 울부짖으며, 가슴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머리와 가슴 속의 난장이 바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인 것이다.



기이이익



### 국내 최고, 최대의 공연예술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2001년 탄생했다. 2002서울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을 문화도시로 선보이고자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연극협회와 무용협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월드컵 기간에 맞추어 서둘러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공연예술 문화를 모두 보여주어야 한다는 욕심에 너무 많은 공연을 담아 내다보니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면이 없지않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양 협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 사단법인화, 예술감독제와 책임임기제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참가 작품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국제적인 공연예술제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해나갔다.

### 13개국 38개의 연극, 무용, 음악극의 무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2008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세계 13개국에서 39단체가 초청되어 38개 연극, 무용, 음악극 등을 공연한다.

개막일인 9월 18일에는 <봄의 제전>(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체홉의 <네바>(아르코소극장), 조선의 뒷골목 <이옥 이야기>(구 서울역사), <잃어버린 풍경들>(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벚꽃동산>(드라마센터) 등이 동시에 무대에 올랐다.

안무가 안은미의 <봄의 제전>은 스트라빈스키의 과격하고 직선적인 리듬감이 안은미의 곡선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과 섞여 기발한 무대 위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구 서울역사에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한 ‘조선의 뒷골목 <이옥이야기>’는 ‘젊은 앙상블, 젊은 무대미술상’을 수상한 극단 ‘연劇미’가 조선시대 뒷골목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락과 춤을 사용해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극단 몸꼴의 ‘돈키호테 <인간적 열광>’ 역시 구 서울역사의 무대 환경을 잘 활용하여 몸꼴만의 독특한 언어와 철학을 가지고 세르반테스의 광기와 해체를 전달했다.

극작가 안톤 체홉의 아내이자 당대 최고의 여배우 올라가크 니페르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칠레 블랑꼬 극단의 ‘체홉의 <네



비련의 여인을 바라보는 스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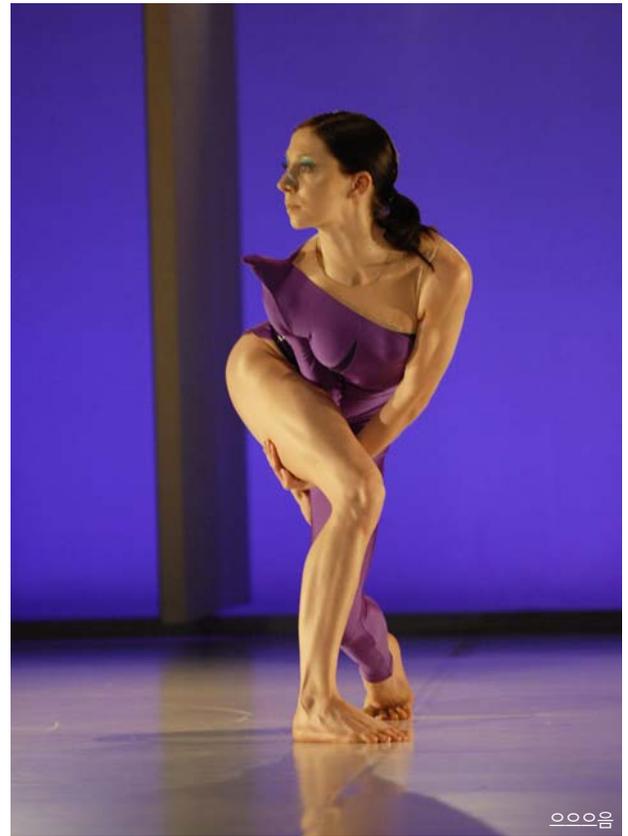
바)'와 안톤 체홉 원작 <바나아저씨>를 아르헨티나 조상들의 이야기로 각색한 아르헨티나 극단 체홉 프로젝트의 <비련의 여인을 바라보는 스파이>도 주목할 만하다. 위의 두 작품은 연극에서 무대의 규모나 세트, 조명의 화려함에 우선해 배우들의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작품들이었다.

한국의 NOW무용단과 아일랜드의 Dance Theatre of Ireland가 공동 작업한 <지붕아래>와 <평평한 지평선>은 서양과 동양의 악기와 춤이 충돌과 반목을 넘어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여 동서양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냈다. 이 작품은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동작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 우수초청작품들로 채워질 9월에 이어 10월에는 해외에서 초청될 수준 높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러시아 황금마스크페스티벌에서 최고작품상과 연출가상을 수상한 민다우가스가 연출하고 러시아 최고의 타바코프 극단이 공연하는 <바나아저씨>, 2007년 <세일즈 맨의 죽음>으로 서울연극제에 초청되어 극찬을 받은 루크 퍼시발의 <오셀로>, 사운드 아티스트와 미디어 아티스트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인 일본의 <기이이익>, 2008년 아비뇽 초청작인 프랑스 무용 <목신들의 오후>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연극을 접목시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한국 극단 코러스의 '사운드 뮤지컬 <Happy Prince>', 축제 마지막 날 스페인 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빠에야 믹스타> 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작품들이 줄줄이 이어져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 세계로 나아가는 문,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을 '세계를 바라보는 창,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창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세계로 나아가는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



오셀로



오셀로

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탄생 10주년을 맞은 2010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좀 더 많은 공동작업, 공동제작, 나아가서는 자체제작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아시아 최고, 언젠가 세계 최고의 공연예술축제로 발돋움하리라 믿는다. 

글 이만동(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기획홍보팀장)

#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무용축제 - 서울세계무용축제



그리스 로에스 댄스 시어터  
작품 <엘렉트라, 가해자>  
photo by Tassos Vrettos

## 한국문화예술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서울세계무용축제(Seoul Int'l Dance Festival, SIDance 이하 시댄스)는 작년으로 꼭 10회를 맞았다. 11회 째를 맞이하는 2008년은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는 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대로 시댄스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난 10년간 47개국에서 1,100여명의 예술가와 500명이 넘는 공연예술 관계자, 국내 3,000여명의 예술가,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2,000여명 스태프 그리고 150,000여명의 관객이 시댄스와 추억을 함께 했다.

시댄스는 국내 예술의 진보와 공연문화의 향상을 가져오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예술의 지위를 확보했다. 더불어 우리 예술가 및 관객들에게 폭 넓게 세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무용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달려왔다.

국제교류 및 공동제작에 있어서 예술가 간 공동제작, 아시아·유럽 및 중남미 대표적인 축제와의 공동제작, 작품의 국제무대 진출과 이에 따르는 심사위원, 강사 파견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 전통의 지속적인 발굴과 더불어 수준 높은 안목으로 질 조맹, 이마누엘 갓, 빈센트 만쭈이, 아크람 칸, 인발 핀토 등 국제무용계의 차세대를 이끌어 갈 스타를 발굴, 소개했고 테크놀로지 댄스, 혼합형 무용계의 최신 조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국내 무용계에 적잖은 자극을 주었던 어린이 무용을 최초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아프리카·중남미 및 북유럽 등 우리 관심권 밖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



콜롬비아 몸의 학교 (엘 폴레히오 델 푸에르보)  
photo by Christian 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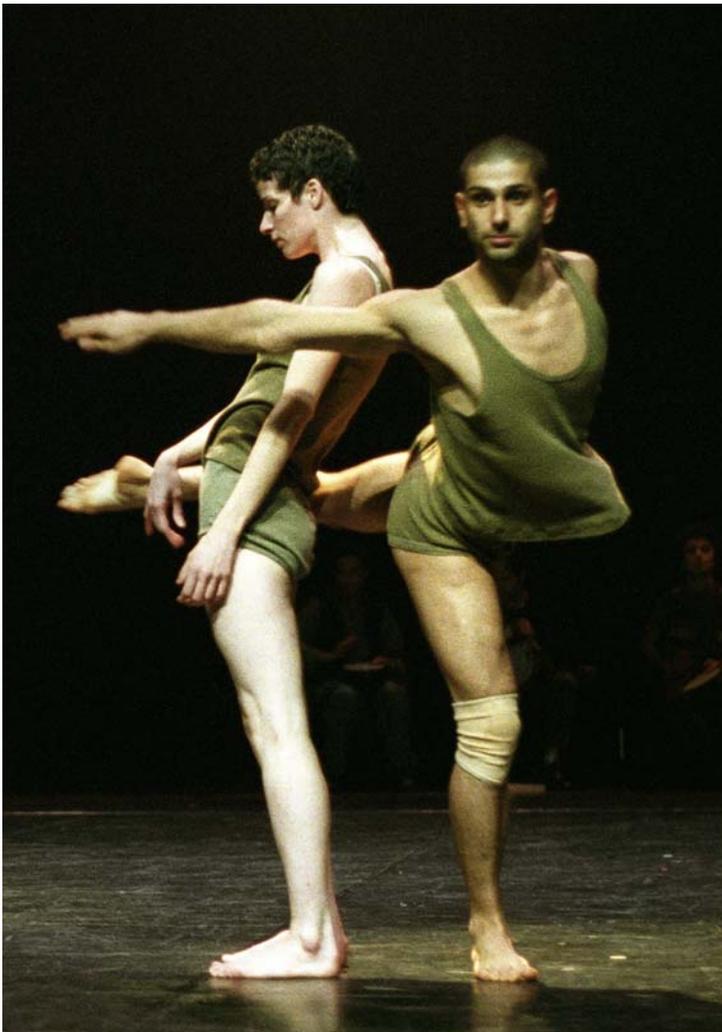
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세계무대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손색없는 명실상부 '최고수준의 축제' 로 평가받게 되었다.

###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레퍼토리

“시댄스를 통해 비로소 시골에 묻혀있던 보석이 무대 전면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됐다.”는 전통연출가 진옥섭의 회고에서 보듯 시댄스는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대무용 및 발레 등에서도 젊은 안무가들이 보다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왔다. 정영두, 김윤규, 정연수, 박순호, 이경은, 김기훈, 김판신 등 한국무용계의 차세대 스타가 거쳐간 시댄스' 젊은 무용가의 밤' 이 젊은 춤꾼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용은 문턱이 높은 장르임에 틀림없다.

갈릴리 무용단 작품 <부디> Photo by Karel Zwaneveld



친절한대사나 설명도 없고 난해해 친해지기 쉽지 않은 장르이다. 그래서 시댄스는 2004년부터 춤을 거리로 내보냈고 작년부터는 본격적인 거리춤 제작에 나섰다. 일명 '춤추는 도시' 프로젝트는 김포공항, 한강대교, 공원, 짬지길, 신촌역, 갤러리, 카페를 가리지 않고 관객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관객친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쇼윈도 춤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비보이들의 힙합을 기술에서 예술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위해 작년 부터 '힙합의 진화' 라는 무대를 마련, 현대무용 및 힙합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2008 가을을 춤추는 상큼발랄 즐거운 무용

올 시댄스는 그야말로 재밌는 춤, 멋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오늘을 만든 스타 에곤 마젠이 록밴드 리더이며 안무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 에릭 고티에에게 헌정한 <돈 큐>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드라마와 코믹 그리고 우수가 절묘하게 결합된 무용극으로 공연예술 마니아 및 일반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작품이다. 그리스 로에스 무용단의 <엘렉트라, 가해자> 역시 현대음악의 거장 마이클 나이먼의 음악에 맞추어 고전의 세련된 현대적 해석으로 멋을 더한 무용드라마다. 스타일은

딘 모스 & 김윤진 <Kisaeng Becomes You>  
photo by Dean Moss





독일 에곤 마젠 & 에릭 고티에 작품 <돈 큐>  
photo by Regina Brocke

고전적이지만 갈릴리 무용단의 대표작들은 진정한 이 시대 명인의 예술철학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콜롬비아 몸의 학교도 소개될 예정이다. 안무가 알바로 레스트레포는 중남미 현대무용을 리드하는 안무가 중 하나이며 가난과 소외에 찌든 청소년들에게 춤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 준 기념비적 인물이다. 음악의 미래가 '엘 시스템아 운동'에 있다면 춤의 미래는 '몸의 학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란한 테크놀로지의 무대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많은 지자체나 기업까지 나서 투자를 서두르고 있으며 국내 안무기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예술의 새로운 한 분야이다. 2001년 스위스 벤투라, 2003년 66b/Cell을 통해 시댄스 관객은 이미 테크놀로지와 공연이 어떠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 경험했다. 이번에는 일본 레니 바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소통 가능한 테크놀로지 무용의 현란함을 경험할 수 있다.

공연제작 과정이 궁금한 관객은 웹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어떤 과정을 겪으

며 완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미국 DTW와 시댄스가 제작 후원하는 던 모스, 김윤진의 한·미 공동제작 <Kisaeng Becomes You>는 공연이 완성도 되기 전에 홍콩 뉴 비전 아트페스티벌로부터 초청을 확정 받은 작품이다.

시댄스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테크놀로지 예술의 미래,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세계화 전략, 힙합과 같은 대중문화의 예술화 등 다양한 무용현황에 대한 담론을 축적해왔다. 이제는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올해 국내 처음으로 2008 공연저널리즘 서울포럼을 주최한다. 영국 The Times, 프랑스 Le Monde, 이스라엘 Y Net, 독일 Ballet Tanz 등의 평론가들을 포함, 공연예술에 있어 국제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축제기간 서울에 초청해 한국의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그들의 입과 매체를 통해 우리 문화를 본격적으로 인식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관객에게 축제는 즐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제는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축제는 장르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한다. 또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야 하며, 예술과 사회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단한 노력의 결정체다. 지난 1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의 10년이 그러할 것이며 한국 문화예술이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많은 관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춤을 즐기고, 격의 없이 말하는 그 날까지 서울세계무용축제는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글 김신애(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처장)



구오 이천, <서울시립미술관 침입>, 2008

참여하면 더욱 즐거운 미디어아트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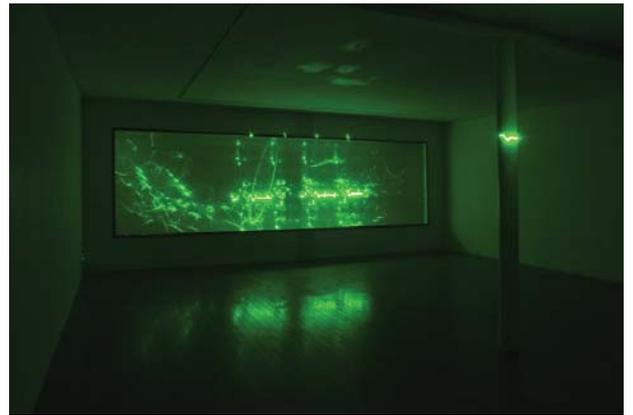
마츠오 타카히로, <환생>, 2007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9월 12일부터 5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전관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5회 비엔날레는 지금까지의 전시들을 되짚어 보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미디어아트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미술과 미디어아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로 인해 나타난 미술상의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 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와 같은 물음들을 던지고, 그 해답을 다양한 작품들의 전시로 찾아보고자 한다.

1980년도 중반 이후로 널리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미디어아트란 TV, 비디오, 컴퓨터와 같은 매체들과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을 말한다. 이 미디어아트의 등장으로 예술가들은 물감, 돌, 청동 등 전통적인 재료 외에 새로운 표현수단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이것을 매체의 전환으로 본다. 매체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적 경험의 확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전환과 확장'이 이번 비엔날레의 큰 주제이며, 전통적인 미술과 달리 미디어아트가 제시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빛, 소통, 시간이라는 세부적인 장으로 나누어 1층, 2층, 3층 공간에 작품들을 구성, 배치하여 보여주고 있다.

### 2008 비엔날레의 특징

위와 같은 주제와 세부적인 장으로 구성된 이번 비엔날레 전시작품들은 몇 가지 특징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채미현 & Dr. Jung, <우주>, 2006~2008



채미현 & Dr. Jung, <우주>, 2006~2008

첫째, 미디어아트로 분류되는 모든 영역의 작품들을 망라하고자 했다. 사진, 디지털프린트, TV, 비디오,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들에서부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빛의 효과를 연출하는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아트로 불리우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미술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낯설게 여겨온 미디어아트를 정리해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 즐길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하여 전시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했다. 흔히 미디어아트 전시들은 컴컴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30여분씩 전개되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을 망라한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는' 미술전시 방식에서 탈피했다. 관람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작품이 완성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는 현대미

술의 한 경향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셋째, '모든 미술작품은 작가의 발언'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메시지가 분명한 작품들 위주로 선정했다. 각각의 작품들이 단순한 흥미 위주의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각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 혹은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넷째, 5개 대륙 26개국 작가들의 77개 작품들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예술세계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전이라는 이름 아래 서구 또는 동양 미술 일변도의 전시를 보여주던 지금까지의 전시 관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 전시장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흥미롭게 구성된 전시일지라도 수많은 작품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즐겨야 할지가 막막하다면 낭패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즐기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전시를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들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흔히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전시에서 모든 것을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대하면, 지루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 우선 흥미롭고 시각적으로 관심이 가는 작품에 주목하면서 참여하고 즐긴다는 생각을 가져 볼 것을 권한다. 전시장 1층에 있는 타카히로 마츠오의 작품에서 빨간 불을 들고 움직이면 스크린 위의 나비들이 따라 움직이는 광경을 체험하게 되고, 어릴 적 나비를 좇으면서 가졌던 환상적인 기억 속에 빠져들 수 있다. 레이저 불빛과 장엄한 소리로 구성된 채미현의 작품에서는 신비롭고 외경스런 달과 지구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 속의 경험과 비교해 보자. 이미 우리 생활 속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TV, 비디오,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본 것들- 광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한번쯤 상기해 보고, 이번 작품들에서 보이는 이야기나 영상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불빛이나 레이저, 네온 등이 미술작품이 된다면 어떨지도 생각해 보자. 미

술작품이 일상생활과 그리 먼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미술작품은 작가의 발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라. 모든 미술작품들은 동시대를 사는 작가들이 우리가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물감이나 조각적 매체를 빌어 표현하며, 미디어 아트の場合は TV, 비디오, 컴퓨터를 통해 발언하는 것임에 주목하자. 2층 공간에 있는 로랑 미노노의 작품에서 타자기 글씨들이 벌레로 변하기도 하고, 벌레들이 글씨를 잡아먹는 장면을 체험하면서 '지능과 생명이 있는 기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까'라는 상상을 해 보면 어떨까. 미술관 천정으로 광음과 함께 날아가는 구오이첸의 제트비행기 모습은 어떤가. 작가는 실험적인 미술가들이 제도권 미술관에서 수용되기도 하지만 거부되기도 하는 현실을 <미술관 습격>이라는 간결한 제목으로 암시하고 있다. 작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오디오 가이드나 작품 설명문을 통해 깊어 볼 수 있다. 과연 작품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단지 흥미에만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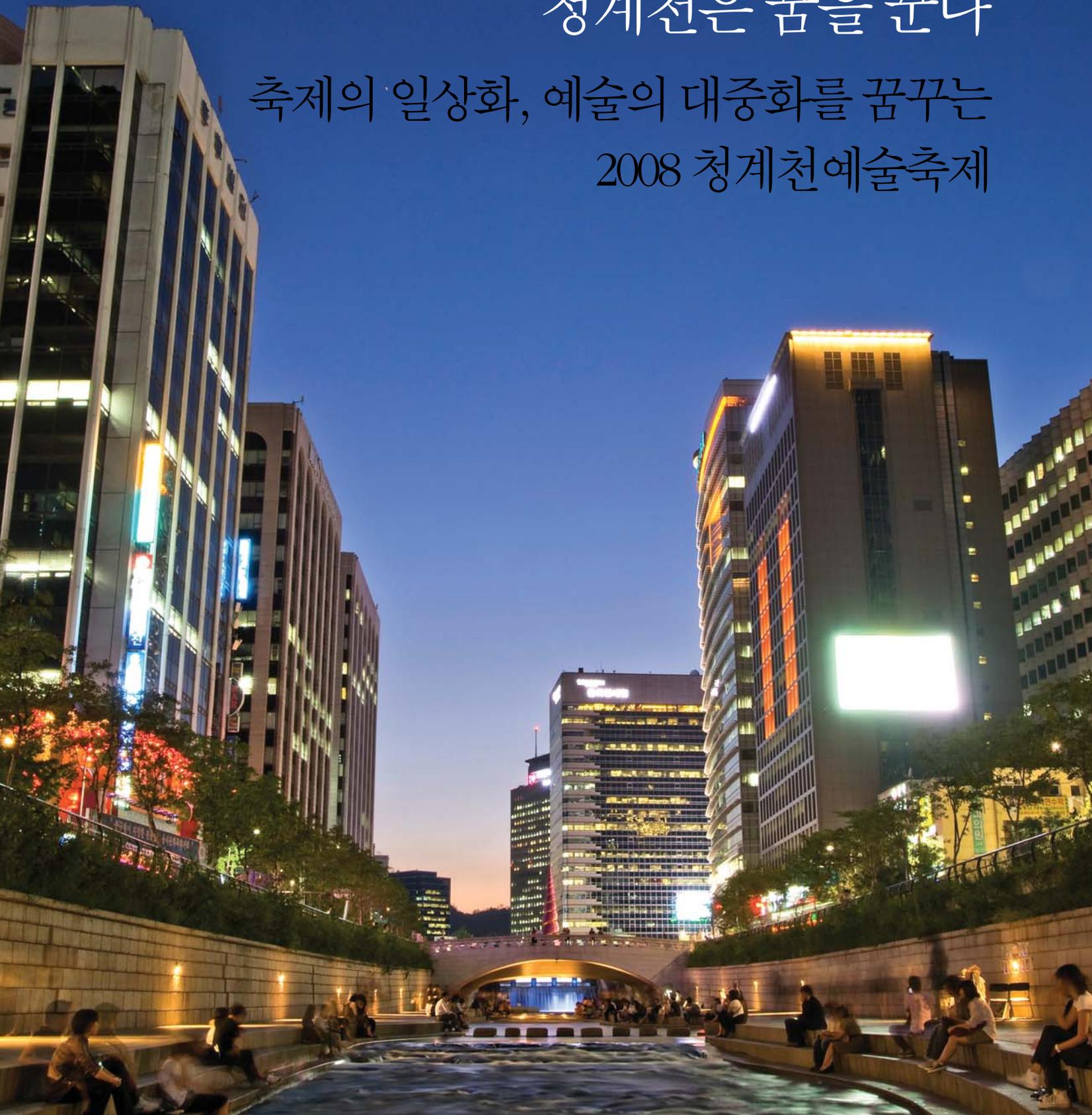
글 박일호(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이화여대 교수)



크리스타 줌머러와 로랑 미노뉴, <생명을 쓰는 타자기>, 2008

# 청계천은 꿈을 꾸다

축제의 일상화, 예술의 대중화를 꿈꾸는  
2008 청계천예술축제





###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축제

청계천 복원 기념식으로 시작되었던 청계천축제가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다. 복원 기념식 의미가 강했던 2회까지의 청계천축제는 다양한 행사들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축제였으며,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축제로 여타의 축제들과 차별점을 갖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다.

더 이상 복원식으로서의 청계천축제는 의미가 없다. 청계천은 이미 생태 복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도심 속의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계천은 도심 속의 시끄러운 잡념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태동하고 있다.

올해 청계천축제는 청계천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 그 이상의 것, 즉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청계천예술축제’로 거듭났다. 청계천예술축제는 ‘청계천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대변하는 축제,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축제’로 청계천을 물들게 할 것이다.

### 청계천을 읽는 키워드, 빛 · 물 · 숨

청계천은 자연을 다스리는 역사이며, 선하게 다스려져야 할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는 도도한 흐름이다. 청계천예술축제는 이러한 청계천의 역사성을 시각 다원예술로 청계천에 표현한다. 청계천예술축제의 시각예술 전시분야 총 감독을 맡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프로그래머이자 헤이리 관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했던 김도암 감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다스림을 ‘빛, 물, 숨’이라는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의 도시 생태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빛’은 세계와 생명의 탄생과 순환, 생태계의 근원인 빛에너지를 상징한다. ‘물’은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물 이야기는 1급수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고도古都 서울이 젊은 생동감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상징한다. ‘숨’은 예술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청계천과 서울을 상징한다.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표현하며 청계천이 생태도시로서 서울이 숨을 쉬는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계광장부터 마전교까지 총 2.2km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패션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하게 되며 이학승, 강영민, 김도영, 김용민, 김태운, 김형기, 남지, 박병춘, 이승아, 이장원, 한승구, 채미현&Dr.Jung, 최문석 등



갤러리 햇

조형 및 인터랙티브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15여명의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청계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축제

청계천을 따라 즐비한 청계천 상권은 역동하는 도심의 모습을 반영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불리울 정도로 청계천 상권은 삶 전반에 걸친 소비문화를 대표한다. 20여개 업종의 7만 여명의 상인들과 함께 셀 세 없이 달리고 있는 청계천 상권은 청계천예술축제에 빠져서는 안 될 주인공이다.

청계천예술축제는 역동하는 도시를 반영하는 청계천의 지역주민, 청계천 상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이 중 '청계장인 꿈의 프로젝트'는 청계천의 장인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로서,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홍보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패션문화협회의 'ECO-FUN 패션예술축제'는 회원 8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패션쇼, 패션 퍼포먼스는 청계천 상권의 의류 부자재를 이용해 물과 인간을 표현하는 행사로 청계천예술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환경과 산업이라는 청계천의 지역성을 가장 친근한 예술 장르인 패션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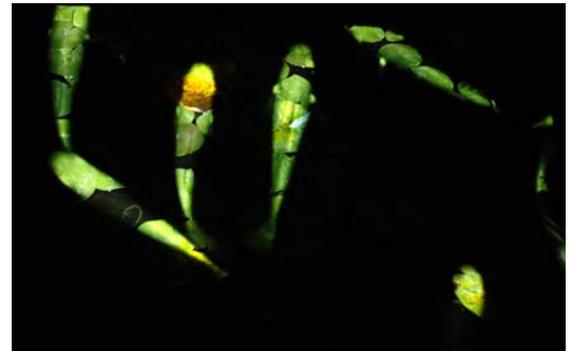
### 축제의 일상화, 예술의 대중화

기존의 축제가 준비된 공연과 행사를 관람하는 식의 수동적인 축제였다면, 청계천예술축제는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축제이다. 축제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축제 전부터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축제의 일상화' 를 꿈꾼다.

시민참여 프로젝트는 <UCC공모전>, <청계천 소망의 달 만들기-청계의 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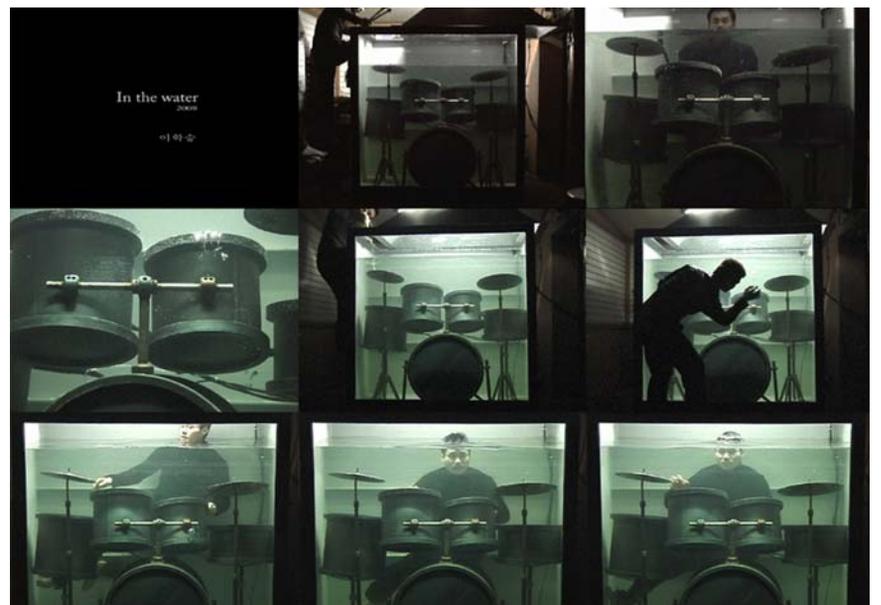
김도명, <草魚1 식물>, 영상 비디오



김도명, <草魚2 식물>, 영상 비디오



이학승, <In the water(양수 속에서)>, 2008





강영민, <LOVE>, 2008



김형기, <거꾸로 선 자연장군>,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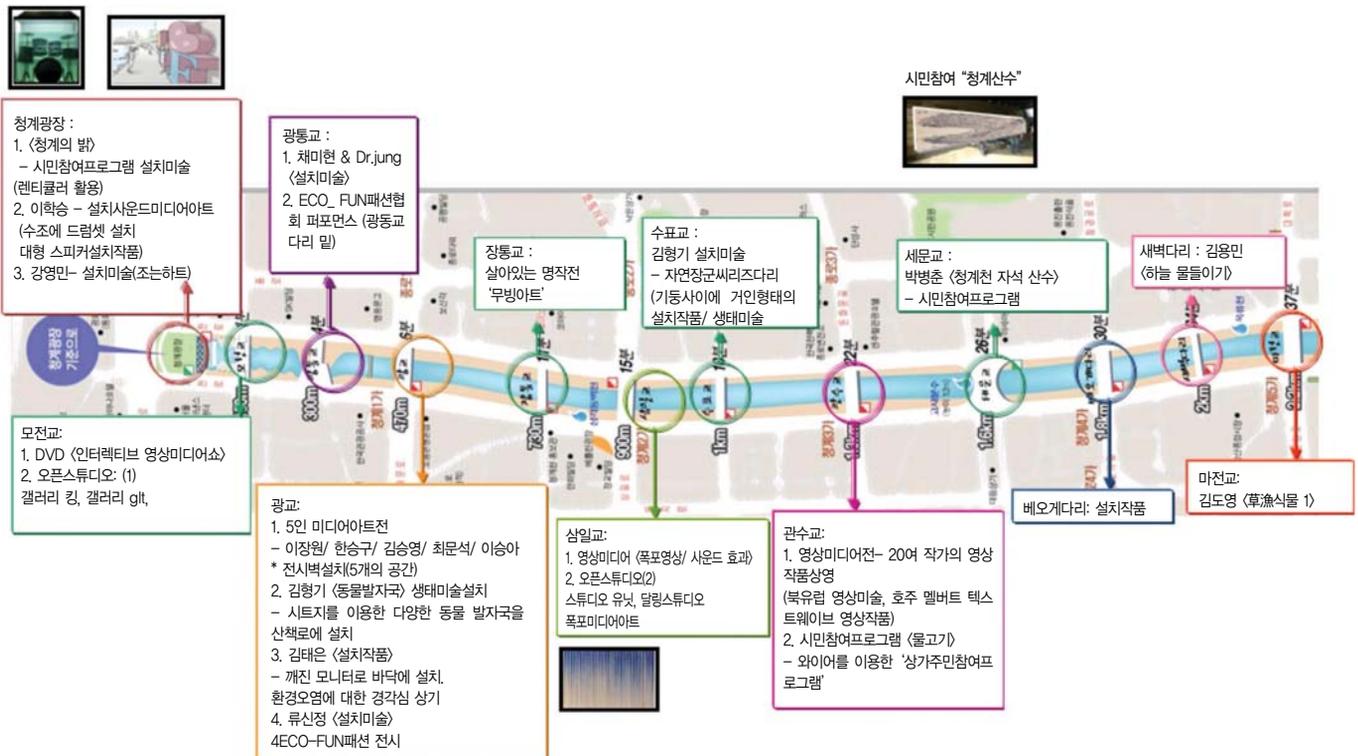
<시민들이 완성하는 청계 산수>, <아트마켓>, <청계장인 꿈의 프로젝트>의 크게 다섯 가지로 진행된다.

‘청계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접수된 UCC는 축제 당일 상영될 예정이며, <청계천 소망의 달 만들기-청계의 밤>은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등근 달을 제작하여 청계천을 밝히는 행사이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개인적 바람을 한 줄로 남기면 소망들이 하나둘 모여 작품으로 완성된다.

<시민들이 완성하는 청계 산수> 또한 시민들의 참여로 축제를 준비하는 행사 중 하나이다. 박병춘 작가의 작품, ‘청계산수’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석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게 된다. 작가 지방생들의 작품 소개, 판매,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아트마켓도 함께 진행된다. 축제기간 동안 모전교와 광고사이 차 없는 거리에 아트마켓 부스가 세워질 예정이다.

청계천예술축제의 또 하나의 목표는 ‘예술의 대중화’이다. 지금까지의 예술제가 전문가들을 위한 그들만의 축제였다면, 예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예술이 주는 감동과 기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계천예술축제가 지향하는 예술의 대중화이다.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형 프로그램은 예술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인다. 광통교와 수표교에서는 오픈스튜디오를 열어 작가가 시민들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VIP와 기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도슨트 운영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마전교와 관수교에서는 청계 창작스튜디오 주관으로 <광장시장 오감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계천 상권을 직접 느끼며, 작가의 작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청계천, 꿈에 물들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다스림의 역사,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장소, 역동하는 도심 속의 휴식과 여유 공간인 청계천은 문화와 예술로 새롭게 꽃피게 된다. 창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누구나 부담 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청계천예술축제이다.

청계천예술축제는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은 서울의 모든 시민들에게 단꿈을 선사할 것이다. 

글 오영주(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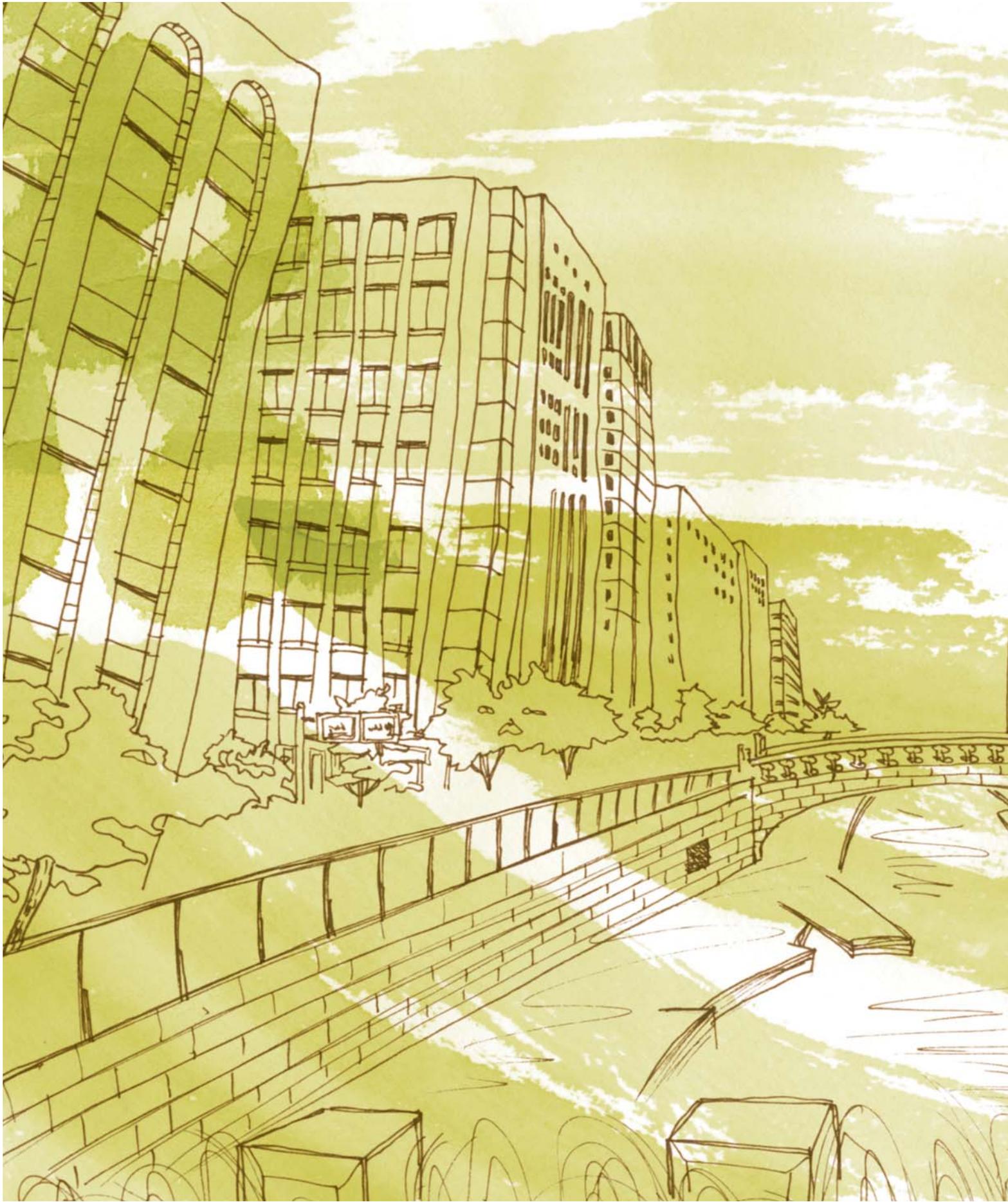


### | 공연예술 프로그램 |

	UCC 공모전 - 청계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	청계천 소망의 달 만들기 - 청계의 밤	시민들이 완성하는 청계 산수	아트마켓	청계장인 꿈의 프로젝트
참여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카페접수 ( <a href="http://cafe.naver.com/cheonggyeart.cafe">http://cafe.naver.com/cheonggyeart.cafe</a> ) 또는 현장접수	관수교 다리 밑을 지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kirika@stac.or.kr	02-3290-7143 으로 문의
문의	02-786-9797	02-786-9797	02-786-9797	02-3290-7143	02-3290-7143
접수기간	9/10~25	-온라인참여 (9/10~25) -현장참여 (9/19~21)	현장 참여 (9/28~10/3)	9/16~20	9/16~20
참여/ 전시기간	10/3~5	10/3~5	9/28~10/3	10/3~5	10/3~5
참여/ 전시장소	관수교 밑에서 상영	청계광장, 장통교	관수교 밑	모전교~ 광고 차 없는 거리	관수교~세운교

### | 시민참여 프로그램 |

요일	10월3일(월)		10월4일(화)		10월5일(수)	
시간	내용	장소	내용	장소	내용	장소
14:00						
15:00	거리예술축제 (모전교~광고)	청계광장~ 모전교	육의전축제 개막식 (종로청계관광특구)	청계광장	거리예술축제 (모전교~광고)	청계광장~ 모전교
16:00						
17:00						
18:00						
19:00						
20:00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축하공연	청계광장	ECO-FUN 패션쇼	청계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축하공연	청계광장
21:00						
22:00						





지금 서울은



## 인디와 비(非)인디가 벌인 음악 수다 한판 - 영상음악토크쇼 '음악에 세계 말 걸기'

김구라, 배철수, 신해철이 흥대 무대에 섰다. 이들이 흥대에 온 이유는 음악과 한판 신나는 이야기를 벌이기 위해서다. 이들 3인 DJ와 함께 영상, 토크, 라이브 3색으로 꾸며진 '음악에 세계 말 걸기' 는 흥대의 안과 밖을 엮어내려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다. 음악과 토크의 고수들은 3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홍대라는 지역은 음악에 관한 한 '인디의 메카' 라는 수식 이 말해주듯 강성의 인디 밴드에 의한 자생적 언더그라운드 지 향이 특징이다. 이곳의 음악은 강하고 실험적, 비타협적이며 그들의 지향에 공감하는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간혹 예외도 있지만 인디 밴드들이 출현하는 홍대의 라이브 클 럽은 대부분 좌석이 아닌 스탠딩이 기본이다.

KT&G가 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홍대 주차장 골목 소재의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 라이브 홀도 스탠딩 공연 을 상징하고 무대가 설계되었다. 설 땅이 마땅치 않은 인디 밴드 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자는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다. 출연 자는 대체적으로 인디 밴드들 중심이다.

하지만 상상마당 1년이라는 시의적 각별함은 기획의 변화 를 요구했다. 인디적 성격을 유지하되 1주년이 주는 특별함을 기회 삼아 접근 확대를 시도해보자는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수 개월 전부터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상상마당의 홍보 디렉 터로 활동하지만 음악평론가라는 신분 때문에 더러 공연장 일 도 가담해온 필자는 이번 1주년 기념공연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 생생한 토크와 라이브, 영상의 만남

라이브 홀 팀이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홍대의 인디적 성격을 공연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비홍대적, 비인디적 터치



를 결합해보자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홍대적이면서 가장 비홍대적인 공연아이템' 을 실현시켜보자는 얘기. 뜻 은 좋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몇 차례의 논 의 끝에 '이야기가 있는 공연'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막 상 그렇게 꺼내놓고 보니 조금 평범했다.

그러다가 토크의 게스트를 유명스타로 하고, 라이브는 인디로 가는 방향으로 결론을 봤다. 나는 거기에서 DVD 공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덧붙이지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음악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관람하고, 영상도 보 는 일거삼득이라서 나름의 큰 의미가 있을 듯 했다. 가장 중요 한 문제는 토크를 담당할 스타를 누구로 하느냐는 것이었다.

3일 릴레이 토크 공연의 게스트는 첫날 개그맨 김구라, 둘째 날은 DJ 배철수, 마지막 날은 독설의 마왕 신혜철로 결정 되었다. 음악이야기 공연의 성격을 감안할 때 개그맨인 김구 라의 존재는 애매하고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평소 사석에서(근래에는 방송을 통해) 음악에 나름의 조예를 보여 왔음을 알고 있는 나는 강력하게 그를 추천했다. 공연장 을 찾은 손님들에게 그의 풍부한 음악지식이 깜짝 놀라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게다가 김구라와 배철수가 홍대 이미지와 연결지점이 없 디는 점은 상기했듯 1주년 공연의 '홍대적 성격과 비홍대적 성격의 동시 구현' 이라는 취지와 부합하는 필요조건이라서



재고의 여지가 없었다. 신해철의 경우는 홍대 이미지와 동떨어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다 떠나서 토크의 손님으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홍보의 측면에서는 화려한 캐스팅임에 분명했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홍대라는 지역에서의 공연은 마니아 성격이 강한 탓에 차라리 한 밴드의 공연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유명스타의 토크와 라이브, 영상을 섞는 그래서 성격이 불분명한 공연은 구심점이 없어 자칫 관객이 흩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데라면 몰라도 홍대지역 관객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는 1주년 기념공연이 '예술기부'의 개념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공연수익을 전액 성공회푸드뱅크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서 흥행의 부담은 없었다. 관객동원이 목표인 공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덕분에 공연 팀은 비교적 홀가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관객은 예상보다 많았다. 우려했던 바가 반대로 나타나 스타를 보려고 온 사람들, 음악애기를 바랐던 관객들, 토크와 라이브와 영상의 결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확인하려고 온 상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고루 참여했다. 관객층 또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적당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진행자로서 무대에서 바라본 관객들의 눈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음악토크의 재미를 원하는 듯 보였다.

#### 김구라, 배철수, 신해철의 3색 무대

첫날 김구라는 하드록과 메탈 쪽에 대한 조예를 드러냈고 마이클 잭슨,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 오아시스, G3 등 DVD 영상 소개도 잘 해주었다. 그는 개그맨답게 위트 있는 입담을 자랑하면서도 "밴드 음악이 살아야 한다.", "메탈이야말로 나를 키워준 음악이다."와 같은 멘트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1980년대의 팝에서 메탈을 빼놓을 수 없고 국내에도 김구라 같은 메탈 키드들이 많았지만 1990년대 들어 성격이 다른 모던 록이 득세하면서 메탈음악의 기세는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김구라의 출현은 이런 점에서 관객들 가운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메탈 팬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배철수는 관록과 절제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많은 관객들이 “마치 내 눈 앞에서 배철수와 임진모가 하는 FM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코너를 듣는 묘한 기분이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는 좋은 음반을 뽑아달라는 나의 요청에 “음악 듣기도 듣기지만 먼저 연애를 많이 하시라, 사랑을 많이 하시라.”고 (다소 엉뚱하게) 답해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사람 밑에 음악이 있는 것이지, 음악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곰곰이 새기면 심오한 이야기였다. 웃음소리가 가장 많았고 관객들의 들 낙임이 가장 적었던 날이 배철수가 출연한 둘째 날이었다. 배철수 섭외는 정말 어려웠다. 나와 친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좀처럼 외부 행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홍대에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그 같은 음악계의 대선배가 홍대의 무대에 출연해 친구, 선후배의 조화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홍대의 음악적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날 신해철은 가히 마왕, 독설의 대가라



는 별명답게 관객을 단숨에 휘어잡는 힘을 과시했다. 전날 경북 경주의 공연에서 녹초가 되어 몸 상태는 나빴지만 그는 관객에 대해 배려에 최선을 다했다. 첫 토크를 마치고 나와 내게 “관객들을 위해 개그적인 분위기로 끝어가라.”고 다그칠 정도였으니까.

그는 “난 할 말을 했을 뿐, 독설을 한 적이 없다!”, “둘째 아이에게 태교음악으로 메탈리카와 에미넴을 들려줬다.”고 하는 등 강한 톤의 언어로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 말들은 현장에 온 기자들에 의해 다음날 인터넷 포털의 뉴스로 뜨기도 했다. 신해철은 토크로, 또 넥스트와의 공연으로 라이브 홀을 가열된 흥분의 장으로 몰아넣었다. 스타파워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음악에 말걸기는 물론 세계 말걸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점, 상설 공연의 아이টে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상상을 통해 공연형식에 변화를 가한 이런 공연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다.”

## 멀티 공연의 새로운 가능성

‘음악에 세계 말 걸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충분한 음악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닌 게 아니라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악에 대한 후련한 이야기가 부족했다.”는 관객들의 실망과 불만이 많았다. 공연 현장에 서고 나서야 무거운 음악 이야기가 예상 밖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나의 진행미숙도 한 몫 했음을 인정한다.

라이브 홀의 영상스크린 장치가 완전하지 못해 조금씩 진행이 끊기고 매끄럽지 못했던 점도 문제였다. 토크와 영상이 준비 부족으로 서로 동떨어진 느낌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영상 관람에 무리 없이 임했을 뿐 아니라 열의까지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토크, 라이브, 영상을 유기적으로 묶는 구성의 치밀함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일방적인 공연이 미덕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멀티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인디 밴드의 티전이 라이브홀이라 하더라도 공연만으로 구성할 것 아니라 관련 요소를 묶어 관객에게 다양한 거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토크, 라이브, 영상을 묶는 콘텐츠도 하나의 공연장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 상상마당 1주년 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확인했다.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음악에 말걸기는 물론 세계 말걸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점, 상설 공연의 아이টে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상상을 통해 공연형식에 변화를 가한 이런 공연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다. 

글 임진모(음악평론가, 상상마당 홍보디렉터)

# “음악과 영상, 토크의 조합, 새로운 장르 가능성 시도하고 싶다.”

## ‘영상음악토크쇼’ 진행자 임진모 인터뷰

주요 게스트로 많이 출현하시는데, 이번에는 진행자 역할을 했다.

곤란한 점이 많았다. 특히 시간을 잘 맞추지 못했다. 배철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사람인데, 진행자로서 중간에 끊어줘야 했다.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나?

이번 공연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보다는 큰 즐기는 음악 이야기로 흐르지



만 억지로 음악을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음악은 삶의 여러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배철수가 '음악으로 연애 한다' 라고 한 말처럼.

### 이번 공연에 특이하게 영상을 쓴 이유는?

특정한 가수의 열광적인 팬이라면 1시간 반, 2시간 쯤 되는 공연을 스탠딩으로 관람할 수 있지만 두 시간이 넘어가는 공연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번 공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 영상 때문에 공연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알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었다.

### 영상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협찬되는 라이브 콘서트 위주로 선택했다. 공연 라이브 영상은 협찬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전설적인 사람들의 공연 영상을 보면서, 영상속 관객 분위기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등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다.

### 이번 공연의 성과를 들자면.

라이브와 토크, 영상을 접목시킨 공연은 없었다. 새로운 장르로서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 성과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음악과 별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공연하고 싶다. 기성 세대들, 대체로 50년대 생은 음악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다. 대부분 음악이 세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손석희와 우연히 음악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도 만만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 나의 최종 목표는 상상마당에서 서태지의 라이브로, 손석희와 토크를 하는 공연을 여는 것이다.

인터뷰 전지영 기자



# 인간, 연극이 그것을 설명해야 할 때

## - 한국 연극무대를 물들인 체홉 열풍

2008년 한국 연극 무대의 키워드는 단연 체홉이다. 현대 연극계가 고전 극작가 체홉의 희곡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의 희곡에서 만날 수 있는 주인공들의 삶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면의 혼란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배회하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은 올 가을, 한국 연극 무대에서 다양한 실험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것이다.



민다우가스 카르바우스키스 연출, <바나 삼촌>

### 시절인연을 말하다

사실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플라토노프>, <아버지 없는 아들>로 번역이 되어 우리에게 알려진, 체홉이 17살 때 써 무대화를 기대하며 한 극장으로 보냈던 희곡이 봉투도 뜯겨지지 않은 채 반송된 기억은 자존심 강한 문학청년에겐 지울 수 없는 모욕이었다. 책상 밑 서랍에 밀어 넣고 평생을 꺼내보지 않았다는 이 희곡과 관련된 일화만 해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서야 다시 맘 잡고 썼던 희곡 <갈매기>의 신세는 또 어떠했는가? 알렉산드린스키 무대에서 공연된 <갈매기>에 대한 평단의 냉혹한 비판과 관객들의 비웃음에 작가가 절필을 선언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 작품 <갈매기>가 현대 사실주의 연극무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현대 연극무대가 현시하고 있는 체홉에 대한 지금의 애정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한단 말인가.

체홉의 나라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토록 자주 체홉과 근접조우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없다. 200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총 4편의 '체홉' 작품을 준비 중이다. 칠레 블랑꼬 극단 기예르모 갈데런이 연출한 <체홉의 '네바'>, <바나 삼촌>을 원작으로 한 아르헨티나 체홉 프로젝트 극단의 <비련의 여인을 바라보는 스파이>,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 연출가 민다우가스 카르바우스키스가 연출한 <바나 삼촌>과 극단 수의 <벗나무 동산>이 그것이다. 여기에 국립극장 페스티벌에 러시아 말노이극장 <세자매>와 러시아의 젊은 연출가 유리 부뚜소프가 한국의 배우들과 준비 중인 <갈매기>가 합세한다. 이 외에도 2008년 상반기 대학로에서는 '젊은



아르헨티나 체홉 프로젝트 극단, <비련의 여인을 바라보는 스파이>

연극'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용감하게 체홉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극단 미추 연극학교 1기생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 미(美)1의 <바나삼촌>, 극단 퍼포먼스 온의 <갈매기> 그리고 어쿠스틱 음악극으로 장르의 변이를 시도한 극단 아이온의 <갈매기> 까지.

역사를 되짚어보니, 소비에트가 패망을 고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시즌 동안 모스크바에서만 여섯 편의 <바나삼촌>이 동시에 공연된 적이 있었다. 체홉은 갑작스런 사회적 변동에 혼란스러워 하던 소비에트 민중과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작가였다.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알렉 에프레이모프가 연출한 <세자매>(1997)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흑백의 삭막한 무대가 꿈과 희망만으로 모든 시간이 흘러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텅 빈 공허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체홉 희곡의 '세기말적' 읽기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무대에서 체홉은 어떤 시절인연으로 존재하는가?

### 위기에 처한 인간, 연극이 그것을 설명해야 할 때

“무엇이 가고 무엇이 오는 지 정확히 모르는 인간사회. 그냥 어렴풋이 시간이 날아가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릴 뿐인... <벚나무 동산>은 시간과 경쟁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레프도진)

체홉은 지나간 시간을 요약하고 다가올 시간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오늘'의 인간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불운한 과거의 라네프스까야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세자매도 오늘 이토록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을 위로할 낙관적 메시지 대신에 그것을 이겨낼 온전한 지혜란 “그저 살아내는 것” 뿐이라 체홉은 쏘나와 바냐의 입을 빌어 충고한다. 어찌면 세상이란 살아낼 때 비로소 '가능태'의 공간이



칠레 블랑고 극단 갈레던 연출, <네바>



민다우가스 카르바우스키스 연출, 〈바나 삼촌〉



된다는 확신이 쏘나의 눈물 무게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어떤 역사와 정치보다도 더 절박한 '삶' 에 대한 가치관이자 비장한 이데올로기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이 인간을 설명해야 할 때 자주 체홉과 만나려한다. '냉혹' 하나, '정직한' 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체홉 희곡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희랍비극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도 셰익스피어적 감성도 포스트모더니즘적 일탈도 없는 저예산 희곡이다. 사건은 있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고, 갈등은 형성되는 듯하면서 드러나지 않는다. 체홉의 희곡은 그래서 새로운 드라마란 호칭을 얻었다. 이 새로운 희곡은 무대 위에서 사실주의적 일상과 친하여야 하지만 그러다보면 밋밋하고 지루한 '생활' 이 보일뿐이며, 그렇다고 사건을 잡아 늘이고 미려하게 장식하다보면 체홉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 연극이 인간을 설명해야 할 때 필요한 '답' 이 거기 있으나 그 무대화가 쉽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한 세기 동안 연출가들은 무대에서 체홉과 숙명적인 겨루기를 해 왔다. 때로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치달는 비극적 음조로, 어떤 때는 현대연극무대의 테크놀로지와 속도를 더하면서, 때로는 무대 위에 펼쳐진 바나삼촌의 대저택과 뜨레플레프의 끝도 없이 고요한 호수를 배경으로, 또 어떤 때는 노골적인 빈 무대에서 체홉과 단판을 짓는 방식으로 말이다.

체홉의 희곡은 세계를 부유하는 인간의 바깥에서 다시 부유하는 인간을 생각하는 '타자' 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파괴의 유혹에 사로잡히거나 세계를 부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신과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에서 얻어졌다는 점에서 값지다. 그러면서 체홉은 '삶' 을 마치 '작사랑' 처럼 다루고 그

패배의 감성을 '여성화' 시키며 거칠고 소란스럽지 않게 드러낸다. 지독한 고독과 혼란스러운 정체성 속에서 인간들이 스스로의 삶을 붙잡거나 때로는 방치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이다. 이것이 연극이 인간을 설명해야 할 때 필요한 '답' 을 무대에서 확인키 수월찮은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선보이게 되는 민다우가스 카르바우스키스의 〈바나 삼촌〉은 그런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소통불능의 상태에 놓인 인간의 터질듯이 답답한 내면이 현란하지 않게 은근슬쩍 끼어드는 배우들의 작은 행동과, 소박하지만 그윽하게 감지되는 무대효과와 조합하며 해명되는 것이란, 30대 중반 연출가의 손놀림이라고 하기엔 놀랍도록 교묘하기 때문이다.

무대가 열리면 밝은 원목으로 지은 러시아 지방의 대저택이 무대 앞까지 밀고 들어와 관객의 시선과 마주하고 서 있다. 대저택은 베란다와 거실을 나뉘는 유리문을 중심으로 실상은 2개의 공간을 생산해 내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그 속에서 실행시킨다. 이를 위해 연출은 별난 비주얼로 구상하려 애쓰기 보다는 소박한 노력을 기울인다. 체홉 희곡의 분위기를 위한 아주 훌륭한 촉매구실을 하고 있는, 유리창 쪽문으로 나뉘진 거실로부터 세어져 나오는 한여름 밤의 어슴푸레한 저녁빛깔을 닮은 다미르 이스마길로프의 조명의 효과가 그것이다. 여기에 유리 쪽

문을 열어 제치거나 닫는 주인공들의 반복적인 행동들은 답답하고 무료한 심정을 일상의 행동으로 그려내며 체홉 희곡의 적절한 '온도'를 집어낸다. 체홉 서거 일백주년을 기념하여 모스크바 예술극장과 타바코프 극장이 공동기획 했다는 백그라운드에 부합하는 공연이 아닐 수 없다.

## 오늘, 왜 체홉인가?

“체홉은 작품 제목을 음미하면서 ‘빛나무 동산’을 부드럽게 받음했어요. 작가의 부드러운 말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그러나 지금은 불필요한 삶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이제야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버찌 동산’, 이것은 생산적인 의미, 그러나 간 수입을 가져오는 경제적인 동산인게지요. 그런 동산은 지금도 존재하고 필요한 동산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 반면 빛나무 동산은 경제적인 급부를 창출하는 것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 희디 흰 꽃 속에 지나간 귀족의 삶과 시가 들어있어요.” (스타니슬라브스키, 『나의 예술인생』 중)

언제부턴가 우리 무대는 분명히 심각하게 가벼워졌다. 무대가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연극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다른 인접장르의 침입과 그것과의 동침 때문은 아니다. 문제는 생각이 담기는 그릇으로서의 연극의 존재감이 상실되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극의 자기 파괴며, 결국 그래서 관객은 연극과 더불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흥청망청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미로 속을 헤매는 것이며, 두려운 것은 그것이 참혹한 패배의 전조라는 점이다. 이 참혹함을 넘어서기 위해 무대는 언제나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을 위해 지속적으로 클래식을 무대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물론 체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어둠과 황량한 지점을 집어내어 부각시키는 좌파 인텔리는 아니지만, 삶이라고 하는 이 잔인하고도 범우주적인 코미디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절절한 것이 무엇인지 체홉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다하더라도,



극단 수의 <빛나무동산>

탄식하고 오열하면서 존재의 가치 탐색에 삶의 의미를 두었던 트레플레프와 니나의 이야기가 그러하며, 동화되어 닳아가기 보다는 특별한 ‘에고’를 찾기 위해 고통스러워했던 이바노프의 절망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홉을 무대화 하는 것은 한 세기 전 귀족 사회의 공기에 대한 단순한 후일담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질곡에 대한 철학적인 되새김질이 되어야 한다. 1970년 에프레이모프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연출한 <갈매기>에서 신부든 희망과 과거에 대한 거대한 회의를 통곡, 외침, 신음, 탄식과 같은 무자비한 노골성으로 표출하며 70년대 사회가 만든 폐허의 풍경을 그려낸 것처럼 말이다.

당대 연극과 희곡의 강경한 주류로부터 의연하게 떨어져 나와, 내면의 혼란으로 세계에 부유하는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재를 주인공들에게 담은 섬세함의 정서로 끌어내었던 체홉의 희곡이 일백년 동안 도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전정옥(연극평론가)

#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고궁뮤지컬 '대장금'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궁(宮)'. 하지만 궁은 더 이상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고궁에 꼭 맞는 옷을 만들어 입고 다시 무대에 선 '대장금' 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고궁뮤지컬. 올 가을에는 '대장금' 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고궁과 만나보자.

## 뮤지컬, 궁(宮)에 숨결을 불어넣다

서울을 가장 '서울답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600년 고도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특별한 그 무엇'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즈음, 빌딩숲에 가려져도 심의 박제가 된 곳 '궁'이 떠올랐다. 그리고 2007년, 서울문화재단은 작은 모험을 시작한다.

고궁에서 뮤지컬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날씨와 공연시설 등의 무리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역사 공간인 '궁'을 우리 곁에 살아숨쉬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보다 '서울다운 것'은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과감하게 '고궁뮤지컬'을 감행했다. 고궁뮤지컬 사업은 그렇게 서울다운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다. 우리는 역사적 유적지뿐만 아니라 상상하게 남아 있는 '궁'을 일반 대중에게 되돌려주고자 한다. 팍팍한 공연장이 아닌, 탁트인 야외에서 펼쳐지는 한국적 색채의 문화 행사는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관광상품이 아닐 수 없다.

그 첫 번째 시도로 2007년 봄과 가을, '뮤지컬·화성에서 꿈꾸다'와 '공길전'이 경희궁에 올려졌다. 모두 궁과 궁합이 잘 맞는 소재의 작품이었고, 궁을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극장공간으로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2008년 고궁뮤지컬 두 번째 해를 맞아 서울문화재단은 고궁에서의 문화상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봄축제를 시작으로 가을까지 고궁이라는 특성에 더욱 부합하는 작품들을 공연함으로써 명실공히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 시작은 경희궁 무대에 오른 뮤지컬 '명성황후'였다.

## 명성황후에서 대장금까지

이미 뮤지컬 마니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명성을 쌓아온 뮤지컬

'명성황후'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작품의 저력과 예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서울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예상외의 수확으로 돌아왔다.

유투화 첫 사업이라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티켓오픈 20일 만에 전회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걱정을 말끔히 씻어냈다. 고궁이라는 하드웨어와 뮤지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훌륭한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인위적인 조작 없이 궁 모습 그대로를 연출하여, 지금껏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뮤지컬 '명성황후'로 관객에게 찬사를 받았다.

두 번째 작품인 뮤지컬 '대장금'은 기존의 완성된 뮤지컬을 단순히 고궁에 접목시키는 것에서 넘어서고자 했다. 고궁에 맞추어 새롭게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2007년 작품선정에 들어가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뒤 지난 달 9월, 공연을 오픈했다. 뮤지컬 '대장금'은 2007년 초연 당시 뮤지컬 한류를 주도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았다가 흥행 참패라는 쓴 잔을 마신 기억이 있다. 50여회로 구성된 대작 드라마를 2시간 30분 안에 눌러 담느라 원작의 매력과 뮤지컬의 장르적 특성을 모두 살려내지 못했던 것이다. 2008년 고궁으로 무대를 옮긴 뮤지컬 '대장금'은 고궁에 맞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었다"는 제작진의 말대로 대본부터 음악, 의상, 연출까지 모두 바꾸는 바람에 지난 공연에 투자한 제작비 60억 원





은 휴지조각이 됐지만, 외면당한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려낸 제작진의 의지와 고궁에서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서울문화재단의 계획하에 알토란을 수확해냈다.

고궁뮤지컬 '대장금'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100분 안에 명확한 기승전결을 그려냈다. 민정호와 대장금의 사랑, 최상궁의 모략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야기도 확 바뀌었다. 러브스토리를 탈피해 파란만장한 역사 실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한복판에 섰던 한 여성의 성장드라마로 거듭났다.

원작 드라마의 수랏간 요리 장면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과감히 인정할 것도 눈에 띈다. 대신 안무로 '어선 경연'의 흥겨움과 긴장감을 묘사했고, 그 이면에 숨은 정치적 갈등을 부각시켰다.

작곡가 이지혜의 음악도 훌륭했다. 한상궁의 죽음, 유배된 장금이 의녀로 거듭나 임금의 주치의가 되는 과정은 음악이 가진 추진력이 없었다면 간결하면서

도 힘 있게 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중간에 삽입된 과도한 힙합 리듬과 전자음향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극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작품은 무엇보다 조광조를 주요인물로 등장시키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이 색다르다. 새롭게 연출을 맡은 이지나 씨는 "계급사회에서 평민이자 또 여자였던 장금이 정삼품까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능력 위주의 실용주의 사상을 설파했던 조광조의 개혁사상을 덧붙여 장금이의 성공 스토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려 했다"고 말했다. 현대적인 선율과 대사를 외치는 듯한 창법도 인상적이었다. 대장금 역을 맡은 리사의 가창력은 단연 탁월했다.

하지만 '대장금'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뛰니 뛰니 해도 가을이 스며든 경희궁 송정전의 운치다. 해질 무렵 들개단을 올라 궁에 들어서면 그 위엄과 아름다움에 압도돼 마음이 이미 절반은 열리고, 아름다운 조명연출과 경희궁 내부를 휘감는 서라운드 음향효과는 실내극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 문화재에서 문화공간으로

도심 속 고궁은 이제 보존하고 바라만 봐야 할 문화재에서 곁에 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문화재청과 협의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2009년, 2010년에도 계속되는 고궁뮤지컬사업은 향후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제한에서 벗어나 닐버벌퍼포먼스 등 고궁과 어울리는 공연예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의 아름다운 문화자원과 예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한 서울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글 정일현(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문화예술로 인생의 제 2막을 열다

## - 2008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노인들의 자아 찾기,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섰다.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 바로 그 이름이다. 문화예술이 이들의 삶에 불어넣는 활기찬 에너지. 다시 꿈꾸는 노인들의 얼굴은 그 어떤 젊음보다 싱그럽다.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은 시민들이 멀게만 느끼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우리 사회 초 고령화 현상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선보인다.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잠자던 열정을 발견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 복지실현 프로그램인 셈이다.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9월에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방적인 기량 향상 중심 예술교육과 차별화하여 노인 세대의 특성과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소통 중심의 쌍방향 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 종묘공원의 화려한 변신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개강파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개강에 앞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어르신들의 대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종묘공원에서 개강파티가 열



렸다. 파티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18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장르별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이 즉석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체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음악과 몸짓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노리단', 찾아가는 아코디언 교육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전통 타악 그룹 '국악누리', 참여 형 거리극 공연단체 '호모루덴스 컴퍼니', 공공미술 분야의 '고도아트', 라디오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라' 등 총 6개 단체가 제각기 다른 색깔의 공연을 보여줬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악기 연주를 하는 노리단의 신나

는 연주 퍼레이드는 종묘공원 내 정적을 깨며 어르신들의 시선을 끌었다. 재활용품 악기의 독특한 외관에 대한 호기심과 예상을 뒤엎는 명랑한 악기 소리에 어르신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내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체험 역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노리단 연주 퍼레이드의 마지막은 아코디언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흥겨운 아코디언 연주가 시작되자 아코디언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직접 아코디언을 배우는 데 어르신들의 관심이 쏠렸다. 국악 뮤지컬과 마임 극이 함께 펼쳐진 공간에서는 배우와 관객, 청년층과 노년층이 구분하지 않고 행사를 마음껏 즐기기도 했다.

한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현수막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미술 작업으로 만들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현수막이기에 의미가 남달랐다. 비록 서툰 솜씨지만 다함께 참여해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었다. 이밖에도 라디오 DJ에 도전해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신청곡도 청하는 방식의 라디오 실버스타 프로그램은 DJ에 참여한 어르신 뿐 아니라 종묘공원 곳곳에 설치된 라디오를 청취하시던 어르신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 노년 문화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

어르신들이 6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동선을 따라 열심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예술이 어르신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면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노년 문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다. 이번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개강파티는 앞으로 진행될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자치구별 18개 프로그램의 본격적 행보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입학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참여가 가능한 60세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등) 및 노인관련 복지시설, 노인 밀집 지역 등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연극, 뮤지컬, 공공미술, 전통,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18개 프로그램으로 교육 받게 될 예정이다. 

글 이윤지(서울문화재단 문화교육센터팀)



# 박물관 문턱 낮추기

## - ‘박물관은 살아있다’ 도봉숲 참여 후기

아이들은 박물관을 어렵게 느낀다. 오래된 물건들의 나열, 지루하고 재미없는 해설..... 박물관은 언제부턴가 언뜻 발길이 내키지 않는 곳이 되었다. 박물관이 신나고 즐거운 놀이공간이 될 순 없는 걸까. 우리 아이들과 박물관 사이의 문턱 낮추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9월 11일 목요일, 오늘은 속리산 수정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서울나들이를 하는 날이다. 탐방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과 담인복식박물관. 이화여대 역 2번 출구로 호기심 어린 눈망울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이번에 문화소외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속리산 아이들을 초청했다.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어떤 친구는 벌써부터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늘 아이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

### 비오는 날 박물관 가기

아이들은 두 명씩 손을 잡고 박물관으로 줄맞춰 걸어간다. 반별로 맞춰 입은 티셔츠가 알록달록 하다.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구름 낀 하늘에서 갑자기 한 두 방울씩 비가 떨어진다. 걸어가던 아이들은 유난을 떨며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우비를 꺼내 입는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여기저기서 두들거리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박물관은 비오는 날에 더욱 매력적이다. 비오는 날에는 다른 관람객이 없어서 조용한 가운데 박물관을 전세 낸 것처럼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고친 이화여자대학교



## HOT SKETCH



정문으로 들어가 왼편으로 보이는 작은 계단을 올라가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보였다.

### 편한 마음으로 만나는 박물관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박물관은 살아있다’의 진행 강사, 손기인 선생님이 이화여대 박물관 입구에서 덩수룩한 수염에 웃음이 가득 담긴 얼굴로 아이들을 반긴다.

“박물관과 친해지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라며 인사를 대신하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온 그림 자료를 꺼내어 나누어 준다. 손바닥만한 종이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자와 달 항아리, 해태와 학이 그려진 흥배 그림이 있었다. 손기인 선생님은 여기에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박물관에 대한 기억을 집으로 가지고 가게 할 생각이신 것 같다.

1935년 개관한 이화여대 박물관은 3개 층에 총 5개의 전시실이 있는 규모로, 대학교 박물관 중에서도 꽤 큰 편에 속한다. 또한 국보 107호인 백자철화포도문항아리를 비롯하여, 보물 11점과 중요민속자료 3점 등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오늘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약간 어려워 보이는 ‘도자기, 고미술, 복식, 장신구’라는 주제이지만, 오늘은 선생님의 지도로 알짜배기 유물만 쭉쭉 골라보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를 들으며 신나게 관람을 하고 있다. 고개를 숙 내밀고 유리벽 너머 전시된 유물을 쳐다보기도 하고 마루가 깔린 바닥에 앉기도 하며, 속리산 아이들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박물관을 즐기고 있었다. 보통 박물관에 오면 아이들은 역사나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욕심에 수첩 한가득 빼곡히 메모를 하곤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오늘



처럼 자유롭게 관람하며, 편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로서의 박물관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 다음을 기억하며 돌아서는 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하 1층 담인 복식 박물관까지 총 3개 층을 모두 둘러보았다. 워낙 바쁘게 둘러보느라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재단에서 준비한 다과를 받자 속리산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했다. 사진도 찍고, 저마다 그린 그림들을 바꿔 보면서 한동안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제 작별인사를 할 시간이다. 밖에는 아직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약간은 아쉬운 표정으로 아이들은 이화여대 박물관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섰다. 오늘의 기억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 언젠가 이곳을 떠올릴 수 있길, 그래서 박물관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서운규(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포스터 아카이브



해방기와 전성기의 영화

이성영의 단상

한국영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는다

- 한국영화박물관

한국영화 역사를 필름 한 컷에 담아내는 곳, 한국영화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영화의 오늘이 있기까지 영화인들이 흘린 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국영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원하던 원치않던 박물관 구경을 많이 하게 된다. 초중등학교들에서는 체험학습 대상이 될 만한 박물관 목록을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주고 박물관을 다녀온 뒤 팸플릿과 탐방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그가정통신문을 보면서 나는 서울에, 또는 서울 주변에 그토록 많은 박물관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한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전쟁박물관 외에도 출판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농업박물관, 국악박물관도 있고 심지어 접자박물관, 옹기박물관, 김치박물관도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화박물관은 없었다. 이 영상문화의 시대에, 한국영화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에, 영화 한편을 천만 관객이 보는 이 시대에, 영화박물관 하나쯤은 있을 법 한데 말이다.

### 국내 최초 본격 영화박물관의 탄생

한국영화박물관은 지난 5월 9일 문을 열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해 5월 상암동 DMC단지의 새 청사로 이전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영화박물관과 시네마테크3개관을 개관했다. 제주도에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세운 신영박물관이 있고 남양주 종합촬영소 내에 영화체험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 영상자료원의 박물관은 한국영화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국가기관이 만든, 서울에 생겨난, 비영리 목적의, 최초의 본격적인 영화박물관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영화박물관은 한국영상자료원 1층의 실 면적 3백 평 공간에 꾸며졌는데, 아주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의 주제박물관으로 꾸미기에 형편없이 좁지도 않은 공간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라는 중국전영박물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도쿄의 일본 국립필름센터 내에 있는 영화박물관에 비해서는 두배쯤 큰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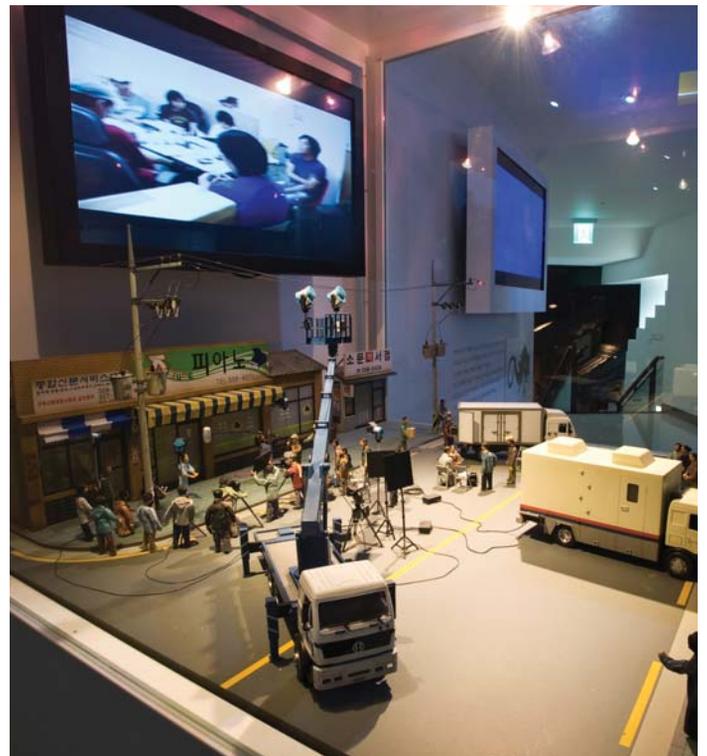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은 아카이브전용 건물로 지어졌고, 지하 1층에 시네마테크 3개관(1관이 328석, 2관이 150석, 3관은 50석), 지상 1층에 한국영화박물관과 뮤지엄숍, 2층에 시청각자료실

과 보존기술센터, 3층에 필름수장고, 4층에 사무국과 한국영화사연구소, 그렇게 5개 층으로 구성돼있다. 문화콘텐츠센터 건물과 포개져있는 우리 영상자료원 현관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한국영화박물관이다. 흰색의 둥근 외벽을 따라 세계영화사 연표가 한국영화사, 아시아 제3세계, 유럽, 미국영화사 등 4개의 들쭉날쭉한 띠 모양으로 장식돼 있어 이곳이 영화역사가 숨쉬는 곳임을 느끼게 만든다.

### 한국영화가 남긴 족적을 따라가다

한국영화박물관은 이름처럼 한국영화사에 집중하고 있다. 박물관은 두개의 원형 공간으로 이루어진 땅콩 모양의 대전시실과 2개의 특별전시코너, 2개의 작은 방, 그리고 소극장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시실은 벽면을 따라 한국영화 1백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영화 시간여행'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한국영화 1백년사는 시대별로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기는 1903년~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구 문물인 활동사진이 들어오고 조선에도 영화인들이 생겨나고 식민치하에서 <아리랑>을 만드는가 하면 군국주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시기다. 제2기는 1945년



~1972년, 해방과 전쟁을 겪고 한국영화 건설기를 거쳐 1960년대의 르네상스를 구가할 때까지의 시기다. 제3기는 1973년~1986년, 청년문화가 대두하고 당국은 검열로 맞서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정책 속에서 영화산업이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 마지막으로 제4기는 1987년에서 지금까지 장선우, 박광수, 이명세를 필두로 한 코리언 뉴웨이브가 한국영화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영화가 대동하고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고 영화마니아층이 확산되고 한국영화에 르네상스가 다시 찾아온 시기다. 벽면에 매달린 82개의 모니터가 각각 시기의 주요작품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이곳에는 한국영화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자료들, 영화인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유품들이 비치되어 있다. 최초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 (1919년)의 개봉광고, 최초의 영화잡지 <녹성>, 6.25전쟁 중 국방부 정훈국 소속 중군촬영기사였던 김학성 씨가 전쟁기록물 <정의의 진격>을 찍다가 폭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당시 지니고 있던 배낭과 군모, 수통과 스틸카메라와 아이코메라도 유리 전시관 속에 진열돼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웅변하고 있다. 스틸카메라에는 총알이 관통한 구멍이 뚫려있고 수통과 배낭에는 혈흔이 묻어있다.

그런가하면, 1973년 정창화 감독의 <흑야괴객> 촬영현장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찍다가 트럭이 촬영팀을 덮치는 바람에 현장에서 숨진 최호진 촬영감독이 안고 있던 아리플렉스 카메라도 삼각받침대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미국에 건너가 살고 있는 정창화 감독이 30년 넘게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박물관에 기증해왔다.

김기영 감독이 생전에 영화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 등을 적어놓은 수첩이, 불타버린 집의 잔해 속에서 찾아냈음을 말해주듯 불과 물의 흔적을 지닌 채 전시되어 있으며, 이만희 감독이 한 여성과 주고받은 대단히 시(詩)적인 편지들, 강대진 감독의 1961년 작 <마부>가 수상한 베를린은곰상 트로피, 임권택 감독



의 모자와 구두, <천년학> 스태프와 배우들이 뺨뺨이 사인해 넣은 임 감독의 방한용 외투,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 시나리오 초고, 1970-80년대 검열로 잘린 필름 컷들도 있다.

<괴물>에서 괴물 컴퓨터그래픽 이미지의 모델이 되었던 괴물 모형, <화려한 휴가>에 나왔던 광주 진압군의 장비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배우 문소리가 입었던 국가대표 핸드볼 팀 유니폼도 전시되어 있다.

각 섹션이 끝날 때마다 영화포스터코너와 함께 당대의 영화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영화음악코너도 마련해두었다. 영화음악의 명품들, <홍도야 우지 마라>, <백치이다> 등을 애살스런 그 시절 그 가수의 목소리로 듣는다.

대전시실 가운데는 한쪽에 여배우열전 코너, 다른 쪽에 개관기획전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여배우열전은 한 시대를 매혹시켰던 여배우들, 식민시대 최고의 스타였던 문예봉에서부터 <자유부인>의 김정림, 신상옥 감독의 아내이자 뮤즈였던 최은희, 한국의 어머니

니 황정순, 악녀 전문배우 도금봉, 1970년대 청춘스타 임예진, 〈애마부인〉의 안소영, 〈씨받이〉의 강수연, 〈공동경비구역 JSA〉의 전문직 여성 이영애, 〈괴물〉의 배두나, 〈밀양〉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까지 여배우들의 모습이 동영상 모니터, 스틸과 캐릭터모형, 소품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한편 개관기획전은 ‘역사의 공간, 상상의 공간, 한국의 역사영화’라는 주제 아래 사극영화들을 다루고 있다. 신상옥 감독의 1961년 작 〈연산군〉부터 이준익 감독의 2005년 작 〈왕의 남자〉까지 연산군을 다뤘던 4편의 영화를 비교하고, 조선조 궁중사극들에 쓰인 소품들을 모아 전시하며,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에 나오는 ‘조씨부인’의 방을 재현해 놓았다. 조씨부인의 방은 조선조 세도가안방의 전형적인 예다. 영화제작사 봄이 이 영화에 쓰였던 가구와 의상들, 장신구, 화장품 등 소품들을 대거 기증해왔다.

대전시실 바깥으로 애니메이션의 방, 영상의 원리 체험방이 있다. 이곳에는 영화발명 초창기의 영상 놀이 기구들과 함께 컴퓨터 그래픽의 원리와 영화 복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동영상 모니터, 그런가하면 사람이 다가 가면 작동하는 영사기가 영사의 기본원리를 알게 해준다. 1902년에 지어졌다가 12년 만에 불타 없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원각사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무성영화 체험관이 있다.

박물관은 더 이상 전시물들이 죽은 듯 있드려 있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대중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역동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박물관의 보편적인 추세다. 우리 영화박물관도 마찬가지다. 영화이카이프의 입장에서 영화박물관은 대중과의 접점이며 한국영화에 관한 대중교육의 장이다. 한국영화박물관도 다양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있으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열린 어린이영화이카데미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역사를 모으는 일, 지금부터라도

흔히 박물관은 수십 년 준비해서 만든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전시품을 하나하나 수집하는 일은 건물이나 다리를 건설하는 것처럼 후다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전신인 필름보관소가 생겨난 것이 1974년이었고 이때부터 영화필름을 비롯해서 영화 스틸, 포스터, 시나리오 등 영화관련 자료들을 수집보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영화박물관의 토대가 되었으니, 한국영화박물관도 30여년 준비하면서 개관의 날을 기다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박물관팀은 그동안 아마도 현존하는 한국의 영화인들 너댓 명에



한명 꼴로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고 기증을 받고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서 비교적 단기간에 영화박물관을 채울 알찬 전시품들을 모았다. 영화박물관 팀은 수집 작업에서 여러 종류의 난적을 만났다. 그것은, 과거의 극장과 영화사들을 싹쓸이해버린 변화무쌍했던 개발 시대, 도시 확장 과정에서의 빈번한 이사, 창고나 지하실다락 등 허드레 공간이 없는 심플한 주거형태인 아파트, 그리고 이 쓸모없는 물건들을 남겨두면 무슨 소용이냐는 영화인들의 무심함이었다. 많은 이들이, 창고 깊숙이 먼지 앉은 카메라나 지난 영화프로의 입장권, 빛바랜 포스터가 장차 살아있는 역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주간지 〈씨네21〉과 함께 ‘한국영화 박물관 전시품 기증 릴레이’라는 이름의 기증캠페인을 1년 남짓 벌여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 조선희(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시민, 사회 그리고 문화와 함께 숨쉬는 기업, 우리은행

## - 우리은행 이종휘 은행장 인터뷰

서울시향의 '찾아가는 음악회' 의 든든한 동반자 우리은행. '시민을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호흡 하겠다' 는 마음 가짐으로 인재 양성,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문화지원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은행은 더욱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종휘 은행장에게 우리은행 문화 지원의 면면을 들어보았다.



우리은행 이종휘 은행장

우리은행은 '찾아가는 음악회' 부터 은행사 박물관 운영, 젊은 작가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현재까지 우리은행이 해왔던 문화 마케팅 및 문화 기부 활동을 소개한다면.

우리은행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망 신진작가와 예술가를 후원하고,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를 진행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전국 미술 꿈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미술대회', '박물관 갤러리 무료 대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미술 꿈나무들이 참여하는 '우리미술대회' 는 우리나라 미술 인재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박물관 갤러리 무료 대관 사업' 은 유망 신진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을 비롯하여 약 80건의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예술의 전당 외 30여 건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후원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사회 환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은행사 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근대은행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농촌자매마을 봉사활동

서울시향과 함께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가장 잘 알려진 우리은행의 메세나 활동이다. 어떠한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

시민들이 원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한다는 취지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참여와 현장을 중시하는 우리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큰 방향에 매우 적합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투게더 우리 임직원 자원봉사 캠페인’을 통해 매년 지점 인근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12,000명의 임직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1924년 이래 서울시민과 함께해온 서울시 주거래은행으로서, 시민들에게 서울시향의 수준 높은 공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것은 무엇이었나.

서울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006년 시작된 서울시향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총 30여회의 음악회에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총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은행과 서울시향이 함께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정명훈 총 예술감독 지휘 공연 5회, 객원 지휘자 공연 1회, 실내악 연주회 42회, ‘오케스트라와 놀자’ 12회 등 총 60회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느끼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예술 공연의 저변을 확대해,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자원봉사활동

다양한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문화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 역시 문화 지원과는 이미지가 다소 동떨어져 보인다. 문화 지원이 우리은행에 어떠한 영향(혹은 이익)을 주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향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적 수요층 또한 보다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메세나 활동에 나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신뢰와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은행산업의 특성상 은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미지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인 은행 수익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고 기업 수익을 사회환원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만큼 훌륭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우리은행의 문화지원이 갖는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은행의 문화예술 지원은 단순 공연이나 전시회 후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주변에서 문화적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서울시 25개 구를 연중 순회하며 구민회관, 대학 공연장, 도서관, 대학병원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무료티켓 나눔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후원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직원 자원봉사와 연계한 문화 나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인근 저소득 가장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함께 공연관람 등 소외 계층 문화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문화, 스포츠 등 특정 분야만 후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의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많은 분야 중 특히 '문화'라는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연, 전시회, 스포츠 행사 후원 등에 집중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경우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 지원과 같은 공적 부조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후원에 기대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 사회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 성숙도가 말로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신뢰와 이미지를 꾀는 은행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 외에도 우리은행이 후원 및 기부,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문화예술 분야 외에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재 우리은행은 환경, 지역사회, 사회복지, 학술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부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우리은행 임직원 5천명이 태안 기름유출 피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상반기 1만 여명의 임직원들이 지점 인근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진행 자원봉사 테마를 선정하여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은 '사랑의 헌혈'을 테마로 선정하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국

500여명의 임직원이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일부를 모아 '우리사랑기금'과 '우리어린이사랑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2600만원, 5600만원이 각각 적립되는 등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후원이나 '사랑의 김장 담그기' 외에도 각종 재해 발생 시 소중한 성금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지원을 계속 할 예정인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인재 양성에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단순 후원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고객들이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적 욕구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참여기회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정례화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미술대회', '박물관 갤러리 무료 대관 사업' 등을 더욱 확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내고, 유망 신진작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혼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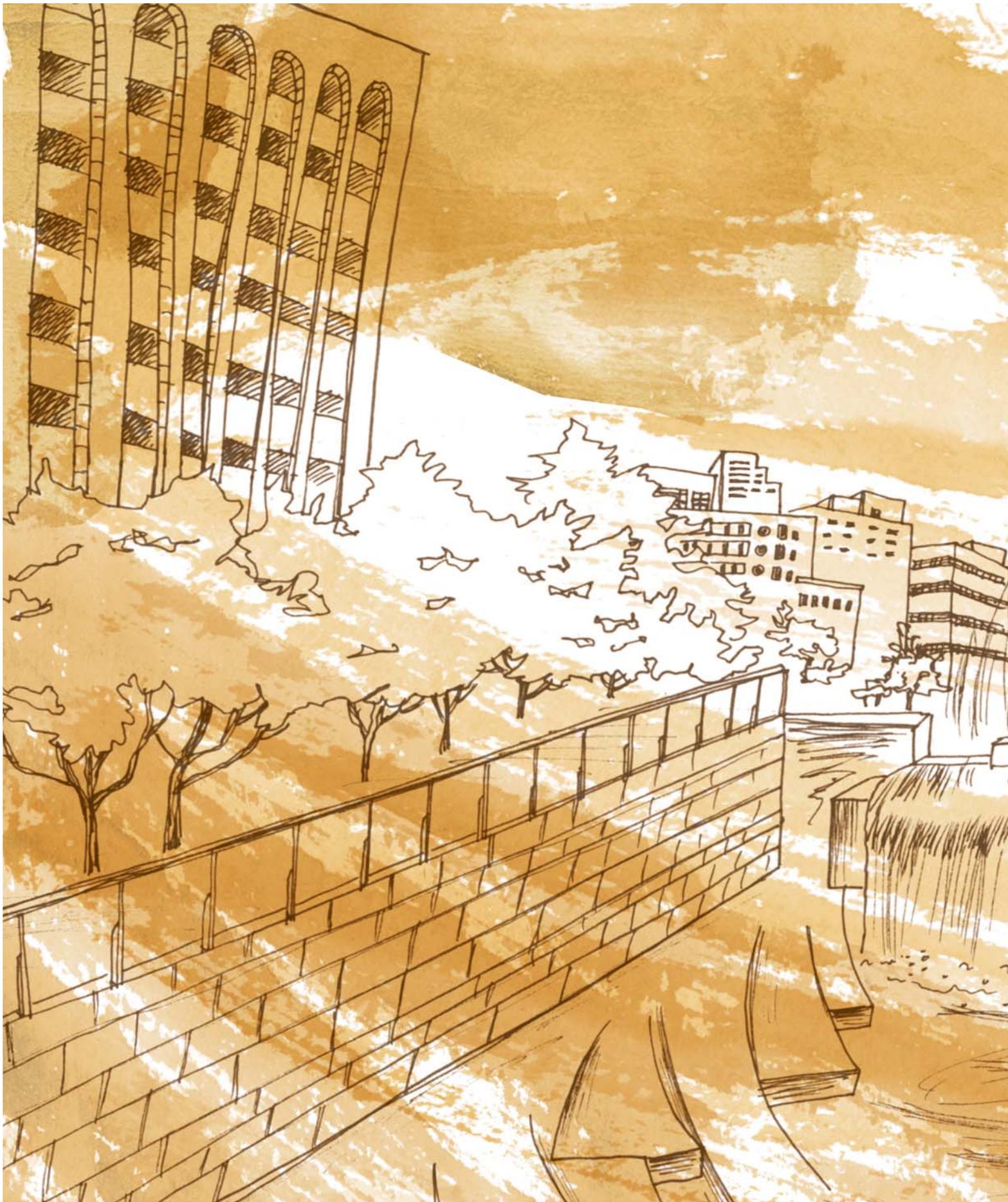
인터뷰 및 정리 전지영 기자



국제청소년영화제 후원 및 문화나눔



장애인금융교육





# 다시 보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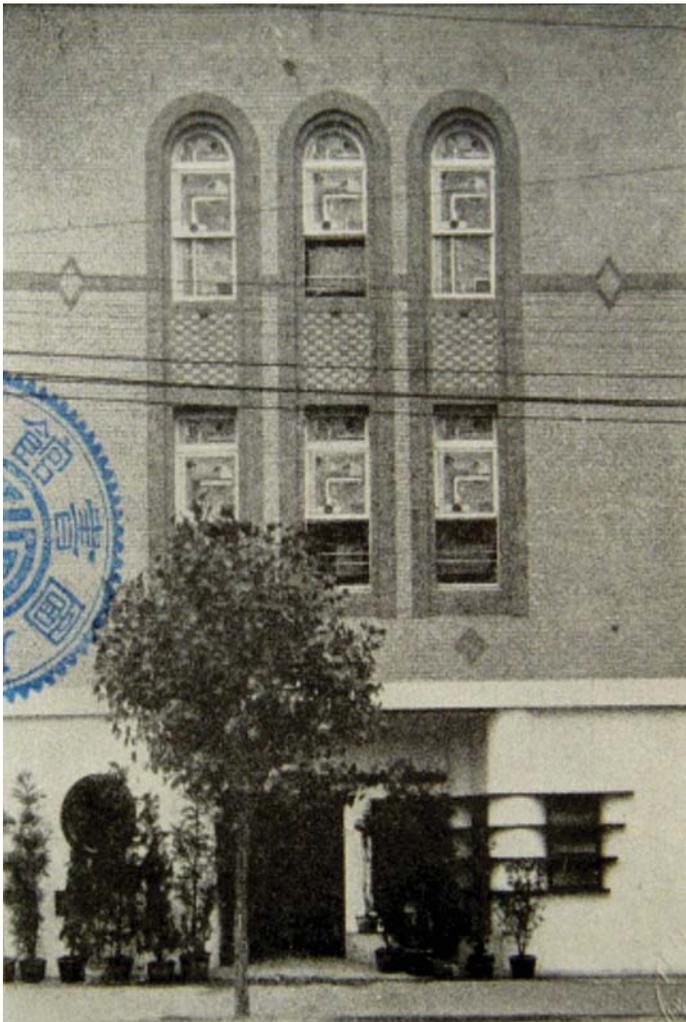


카페 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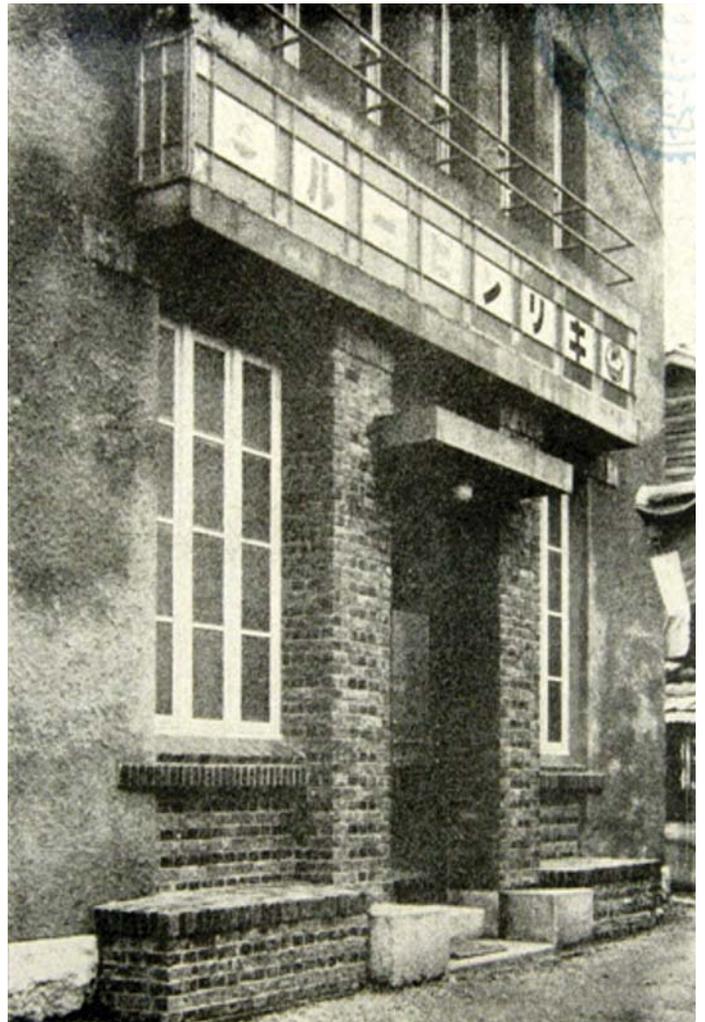
최근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들이 1930년대 경성에 매료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당시 경성 장안에는 서구문물이 물밀듯 흘러 들어왔다. 1930년대의 경성은 것처럼 아픔과 낭만을 동시에 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없이 쏟아낸다. 늘 새로운 문화가 차고 넘치던 그곳, 그중에서도 도시민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갔던 카페문화의 흔적을 따라 1930년대 경성으로 떠나본다.

# 모던보이, 경성 카페에 가다

- 1930년 경성의 카페문화



엔젤 카페



릴리 카페

### 오락과 향락의 중심, 1930년 경성카페

현대 도시인들은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런 유흥문화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오늘날과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전통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도시인들의 유흥문화는 1930년대 경성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경성의 대중문화는 오락적이면서도 향락적이며 소비적이고 일탈적인 모습이었다. 이중에서 카페, 다방, 살롱, 댄스홀 등에서 생겨난 유흥문화가 대중문화를 선도하였다. 유흥 공간 중 당시 경성인들에게 가장 신선한 자극과 문화적 충격을 준 곳이 '카페'였다.

지금의 을지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남촌에서 시작된 일본식 카페

가 금세 북촌인 종로에도 생겨나면서 전 경성으로 확산되었는데, 카페에서 비롯된 다양한 유흥문화는 당시 경성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카페에는 양주와 맥주, 서양음식, 재즈, 사교춤 등이 있었고, '여급'도 있는 등 새로운 문화가 넘쳐났다. 당시 카페의 내부 장식을 살펴보면, 남촌은 주로 일본식이었으며, 북촌은 서구식과 일본식의 혼합이었다. 이곳에는 당시 유행했던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재즈와 블루스, 신민요 등의 음악이 흘러 나왔다. 때로는 흥에 겨운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다.

당시 경성의 카페 수는 193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략 30여 개<sup>1)</sup>가량 된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종로인데, 종로 1정목에 백마, 2정목에 낙원, 엔젤, 백령, 4정목에 신세계, 향락, 그리고 牧丹과 평화 등의 카페가



30년대 경성 지도 및 카페 위치



카페 여급 김보신

있었다. 관철통에는 종로회관, 올림픽, 왕관 등이 있었으며 명치정(현재 을지로2가와 명동)에는 마루비루, 조일 등이 있었다. 황금정(현재 을지로)에는 은송정, 릴리 등이 있었고, 본정에 白蝶, 영락정에 바론, 스즈랑 등이 있었다. 『동아일보』에 실린 카페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엔젤' 카페이다. 엔젤 카페의 도면을 보면 별실이 1층, 2층 합하여 30여개 이상 되었으며, 여급의 수는 대략 1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카페에서 지불해야 할 유흥비는 보통 1인당 10.5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쌀 한가마니 기준으로 볼 때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23만 원 정도 된다.

### 카페 속 사람 풍경

카페는 다른 유흥공간인 다방이나 살롱, 댄스홀 등과 달리 여급이 있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들 중에는 배우출신도 있을 정도로 당시 모던 걸들에게 인기 직종이기도 했다. 카페 여급은 모던문화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각종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으며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카페 여급들은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하자 자살을 기도하고, 유

부남과 사랑을 하다가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여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였지만 순수한 사랑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다. 애정의 상대자는 회사원부터 시작하여 학생, 유부남, 룸펜 등 다양했다. 당시 여급들의 낭만적인 사랑은 경성의 모던문화의 사회적 코드이기도 했다.

여급의 생활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해 보였지만 사회적으로는 낮은 대우를 받았다. 어릴 때부터 음식점, 바, 다방 등의 여급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 유부녀가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카페 여급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카페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착취당하고, 생활도 제한적이었다. "왕관 카페 여급 가나리아가 손님이었던 모지물상 주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시내 드라이브를 하다가 용산 시 앞에서 용산시원에게 발견되어 카페 주인이 시말서를 쓰고 엄중설유를 한 후 돌려보냈다."<sup>2)</sup>는 기사 내용을 보면 카페 여급들이 손님과 함께 바깥나들이를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출퇴근하지 말고 카페에서 합숙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음을 볼 때, 이 당시 카페 여급들이 생활의 자유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여급들은 생활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로 3정목 '백령' (白鈴) 카페 여급 김옥순(18)<sup>3)</sup>과

1) 「카페 경영망 복춘에 진출, 음식점수가 광장히 늘어 작년보다 삼배격증」, 『동아일보』, 1932년 05월 05일, 2면

2) 「드라이브하다가 女給이 取締當해」, 『동아일보』, 1934년 2월 20일, 석간 2면

3) 「白嶺 카페 女給 "人生的 谷"에서 自殺, 앞에 希望燈 안보여 - 진실한 자(自我)를 발견한 여급의 가는 길」, 『동아일보』, 1937년 11월 14일, 석간 2면

4) 「카페 아리랑 女給이 情死未遂」, 『동아일보』, 1933년 7월 22일, 2면

5) 「미모를 기화로 카페 들 사취」, 『동아일보』, 1935년 12월 19일, 석간 2면

6) 「대취한 향악카페 녀급 로상에서 발악」, 『동아일보』, 1934년 12월 27일, 석간 2면

7) 「대련에서 잠입한 청년남녀검거 카페녀급을 엮은 녀자 경찰부돌연대활동」, 『동아일보』, 1932. 05. 19. 2면

8) 「女給이 麥酒瓶들어 酒客面上을 亂打 - 全세 카페계의 話題거리」, 『동아일보』, 1938년 6월 2일, 석간 7면

9) 「풍기문란의 대본영-「카페」를 집중단속 -웨트레스 공포시대가 올 터」, 『동아일보』, 1929년 9월 20일 9면

‘아리랑’의 여급 김죽자(19)<sup>4)</sup> 역시 여급 생활의 고달픔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을 한 것이다.

카페 여급들은 미모를 미끼로 사기를 치기도 하였다. 구영자라는 당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카페 여급이 종로 일대의 카페인 ‘왕관’과 ‘올림픽’ 등의 카페에서 전차금 형식으로 60원내지 1백여 원씩을 선불로 받고 웃음을 팔다가 도망가는 사건이<sup>5)</sup> 벌어졌다. 종로 4정목에 있는 ‘향락’ 카페 여급이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다 경범죄로 체포되는 일<sup>6)</sup>도 허다했다. 이처럼 카페 여급들이 경성 부내의 다양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중에는 좌경 운동가로 있으면서 카페에 위장 취업하여 일한 여급도 있었다. 어느 남자가 경범죄로 체포되었는데 두 사람 중에서 남자, 김영철은 큰 죄목이 없었는데, ‘농자’는 어떤 카페에서 여급생활을 하며 좌경(左傾)운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운동에 가담했다.<sup>7)</sup>

카페에 주로 출입한 손님은 학생과 회사원이었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았다. 학생들의 카페 출입이 금지되었음에도 그들은 카페의 주요 고객이었다. 당시 학생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2%도 채 안 되는데, 카페 한구석에는 경성제대 복장을 한 학생이 술을 마셨고, 여급과 로맨스에 빠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수업을 빼 먹고 카페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카페에서 일탈적으로 놀았으며, 각종 폭행을 저지르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여급에게 주고 유흥비로 쓰기도 하였다.

## 금기의 공간, 제 자리를 찾아가다

카페 안에서는 여급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있는 반면에 각종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카페의 유흥문화에 빠진 어느 이는 유흥비를 감당해내지 못하여 도둑질을 하기도 했다. 카페 여급을 사랑한 시계점 점원이 고급 사진기를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일도 있다. 그리고 술값 때문에 카페 사람들과 싸우다 가 카페 여급에게 맥주병으로 맞은 개척사(開拓社) 주인도 있었다.<sup>8)</sup>

카페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타락적인 일들은 풍기문란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카페에서 금지된 춤을 추거나 여급들이 요염한 자세<sup>9)</sup>를 보이는 등 각종 퇴폐적인 일들이 일어나자 경찰이 법을 제정해 엄하게 단속했다. 카페에서 남자가 손을 잡고 춤추는 것을 금지했고, 학생들의 출입 제한에 대한 단속도 엄했다. 바깥에서도 카페 안은 흰하게 보여야 하며, 축음기의 노래 소리가 밤 11시 이후에는 실외에 들리지 않아야 했다.

오늘날 카페는 커피만 유통되는 건전한 사교의 장소인 곳이 있는 반면에, 30년대 경성처럼 웨이트리스가 있어 술을 파는 곳도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는 각종 카페가 있어 동호회 성격을 띠기도 한다. 어쩌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카페가 본질적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글 우정권(단국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사진 대경성사진첩(서울대 도서관소장)



카페 여급들



카페 바론 내부

# 아스라한 어제, 오늘을 표표히 흐르다

- 중구 회현동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명제만이 변함없는 사실이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식, 또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변모하게 마련이다. 서울은 변화의 속도가 특히 아찔한 곳인데, 그 상전벽해의 도시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아름답게 저항한 공간은 있게 마련이다. 중구 회현동의 지하상가에 가면 아스라한 추억의 일단을 만질 수 있다.



지하상가에 모여 있는 중고 레코드들을 장르별로 따지면 클래식 음반의 숫자가 가장 많다.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은 음악을 듣는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턴테이블 위에 LP판을 조심스레 올려놓거나 카세트에 테이프를 끼우는 대신 MP3 플레이어에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 꺼내 듣는다. 바야흐로 음악을 휴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편리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LP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버튼 하나로 음악을 좌지우지하는 편리함이 때로는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한다. 좋아하는 가수의 새 음반을 사려고 이른 아침부터 레코드숍 앞을 서성거리고, 마른침 삼키며 음반의 포장지를 벗기며, 전축의 바늘이 LP의 표면을 긁어가며 내는 특유의 아날로그적 음색에 귀를 쫓긋 세우는 낭만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만큼이나 일상에서 멀어졌다.

마른 형집으로 LP판을 닦는 부지런한 손  
중고 레코드는 보관 및 손질이 매우 중요하다.



회현지하상가의 중고 레코드점인 리빙사  
45년 역사를 지닌 터줏대감이다.



진열대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는 LP판들  
모서리가 마모된 케이스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 추억을 복원하다

회현동과 충무로를 연결하는 중구 회현지하상가.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크고 작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대고 있다. 그런데 지하상가 중간쯤에 다다르면 어느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LP 음반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중고 레코드점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는 것. 막 구입한 중고 음반의 상태를 점검하는 가게 주인들과 손때가 덕지덕지 묻은 음반들을 일일이 뒤져가며 자신이 원하는 앨범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이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중고 레코드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동의 중앙우체국 일대와 광화문, 그리고 정동 등지에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낸 음악사들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반들로 진열대를 채웠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1990년대 초 임대료가 혈한 회현동으로 옮겨 온 것이다. 회현지하상가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중고 레코드 상점가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 입점해 있는 8개의 업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레코드 상점인 리빙사에 들었다. 명동 시절부터 따지면 45년, 회현동으로 건너온 것만 해도 20년이나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가게다. 리빙사의 주인은 “창고에 있는 음반들까지 합치면 45만장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고 음반을 보유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라며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중고 음반의 가격은 천차만별. 보통 2,000~5,000원 사이에 거래되지만 원반은 1만~5만 원 정도 값을 치러야 한다. 리빙사에서 보관 중인 음반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무려 1,000만 원을 호가한다. 다양한 장르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요나 팝송보다는 클래식 음반이 대종을 이룬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점 주인과 오랫동안 인연을 트고 지내는 LP 마니아들이다. 이들은 명품 음반, 희귀 음반을 위해서라면 발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랑스런 고집쟁이들이다. 이밖에 음대생과 음악 평론가, 방송 관계자들도 종종 찾는다. 전문가 뺨치는 마니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상점 주인이 해외에 직접 나가 음반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녹음 치않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디지털이 모든 것을 호령하는 시대에 아날로그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모습은 애뜻하기만 하다.



앤티크 전문점 유진컬렉션. 입구 가까이에 놓인 대형 축음기가 눈길을 끈다. 초록색의 나팔이 특히 인상적이다.

## 세월과 이야기를 품은 물건들

회현지하상가에는 LP 판매점 이외에도 중고 우표상, 수동 카메라 수리점, 앤티크숍 등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또 다른 상점들이 있다. 그중 유진컬렉션은 필름 카메라를 비롯해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각종 골동품을 그려모아 놓은 곳이다. 문을 연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의 주인은 개인적으로 50년 동안이나 앤티크 제품을 수집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물건 사는 재미에 더해 그 물건에 담긴 에피소드까지 덩어리로 들을 수 있다.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라지만 그 인생의 갈피마다 들어서 있는 물건들 역시 진진한 사연을 품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물건들 중에서도 그는 앤티크 카메라에 가장 큰 애착을 보인다. 한때 수백 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50여 대 가량을 소장하고 있다. “필름 카메라는 마음으로 찍는 것”이라며 편리함을 얻은 대신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잃어가는 요즘 세태를 안타까워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메라’ 들을 장손에게 물려줄 작정이다.

중고 우표 상점의 주인장 역시 50년 수집 인생을 자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오로지 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다른 곳들과는 달리 우표에 관련된 풍성한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우표에는 그 시대 상황이 녹아 있어요. 1954년에 발행된 독도 우표 보이죠. 당시 이 우표가 붙어 있는 편지가 일본으로 배달되면 우체국에서 우표를 까맣게 칠하기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가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가기도 해요.” 상점에는 이밖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우표, 공휴일에는 배달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우표 등 독특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오진근 카메라 수리실도 회현지하상가의 스타 상점 중 하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필름 카메라만을 오로지하고 있는 오진근 씨는 필름카메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생산이 중단된 필름 카메라들은 일단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애를 태우기 일쑤인데, 이곳에 오면 그런 시름이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처럼대를 이어 찾는 단골들도 많다. 또 돌고도는 중고 카메라의 특성상 그의 손을 거쳐 간 물건이 다른 주인을 만나 다시 그를 찾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 수리점들은 중고 필름 카메라를 매입해 수리한 다음 되파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수리’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장인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오래된 카메라들이 지금도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추억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을 오래된 영사기 지금도 ‘촹르르’ 하며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1954년 발매된 ‘독도 풍경 보통 우표’ 3종 세트. 당시 일본은 자국에 배달된 우편물에 붙은 독도 우표가 불법이라면서 만국우편연합에 제소했다가 패소했다.



필름 카메라 수리의 달인 오진근 씨의 작업 모습.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 카메라는 그야말로 부지기수다.





불의의 화마로 소실된 국보 1호 송례문  
대형 가리개 뒤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어진 선비들이 모여 살던 마을

회현동은 중구 남산 자락에 자리를 틀고 있다. 한자로는 '會賢'이라고 쓴다. 어진 선비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賢'은 어질다는 뜻 이외에 재지가 있고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회현동 사람들 중엔 쟁쟁한 선비들이 수두룩하다. 성리학 사에 큰 족적을 남겨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동방 5현'의 반열에 오른 정여창을 비롯해 조선 후기를 주름잡았던 화가 강세황, 세조와 중종조의 문신으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정광필, 인조의 장인인 한준겸 등이 그 화려한 면면이다. 특히 정광필의 가문은 회현동에서만 12명의 정승을 배출했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 큰 선비들이 유유자적하던 회현동은 그러나 근대화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 제일의 화류가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여관 골목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갔다. 어느 도시에도 있을 법한 욕망의 허수아 역할은 회현동이 담당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지리적 이유가 컸다. 욕망을 분출하는 공간은 보통 돈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의 주변부가 맡게 마련인데, 회현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충무로와 명동을 인근에 두르고 있다. 소공동이 재개발되면서 밀려난 중국 상인들도 회현동에 터를 잡았고, 남대문시장에 물건을 대기 위한 하청 업체들도 회현동에 정착했다. 지금도 회현동은 소규모 영세업자



한국 재래시장의 대명사 남대문시장. 서울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코스다.

들이 가장 많은 동네 중 하나로 손꼽힌다.

회현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남대문시장이다. 정확히 말해 남대문시장의 법정동은 남창동이지만, 남창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바로 회현동이다. 남대문시장의 역사는 유구하다. 조선조 태종 14년(1414) 임대 시전에서 비롯됐으니 600년 가까운 역사가 녹아 있다. 영조 16년(1740) 점포 기능을 갖춘 시전이 늘면서 지금과 같은 유통시장의 면모를 띠게 됐다. 남대문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프랑스와 영국의 재래시장이 떠오른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는 길게 부연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요리 대국이자 맛의 본고장. 넓고 비옥한 토양, 질 좋고 풍성한 식재료, 독특한 미적 감수성 등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일구어 냈다. 프랑스의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래시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 할인점의 위세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한국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프랑스의 그것은 여전히 활발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날그날 올라온 신선한 먹을거리들을 상인들의 구수한 입담과 함께 봉투나 바구니에 담아간다. 재래시장들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과 차별화된 전략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



회현동과 인접한 명동의 작은 책방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탓에 유난히 외국 잡지들이 많다.



올해로 38년이 되는 회현시범아파트. 현존하는 서울 최고(最古)의 아파트다.  
몇 년 후에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금도 프랑스 전역에서는 7,000개 이상의 재래시장이 피고 진다.

런던의 여러 시장들을 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장이야말로 런던 여행의 금과옥조라고 입을 모은다. 버킹엄 궁의 위병 교대식보다 커다란 구경거리이고, 대영박물관 못지않은 문화의 보고이며, 고급 유명 백화점보다 살거리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다른 명소들을 뒤로하고 '마켓 투어'로만 런던 일정을 짜도 며칠은 너끈히 보낼 수 있다. 명절이나 반짝할 뿐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한국의 재래시장을 생각하면 부러운 일면이 아닐 수 없다. 남대문시장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뜰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승례문이 허무하게 불타고 난 뒤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주름살은 더 늘어났다. 그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날, 오늘의 기억이 내일의 푸근한 추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 사진 노중훈 (여행 칼럼니스트)





# 서울 내일의 얼굴

한글에  
감성을  
입혀다

- 캘리그래퍼 강 | 병 | 인



바탕, 굴림, 돋움.....  
 컴퓨터가 만들어 낸 글씨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한글은 그저 문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딱딱하기만 했던 한글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한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업은 캘리그래퍼  
 그 시작점에 강병인이 있다.



연필로 또박또박 일기를 써본 적이 언제인가 싶다. 손으로 곱게 쓴 연애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본 지는 또 언제였던가. 초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연필을 잡고 꺾꺾 눌러가며 한글을 배우던 시절의 설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라지는 것들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손으로 쓴 글씨에 대한 향수는 너무 진하다. 이번 호에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손 글씨를 제작하는 캘리그래퍼 강병인 씨를 만나보았다.

### 먹의 향기, 붓의 힘

산사춘, 참이슬, 대왕세종, 엄마가 빨났다, 승례문 가림막 '아름답고 늙은 모습 그대로' ... 이 이름들을 떠올려보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글씨체가 있다. 컴퓨터로 뽑아낸 듯한 활자가 아닌 붓으로 휘갈겨 쓴 글씨. 그 글씨를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으면 드라마의 색깔이, 제품의 성격이, 책의 내용이 어렴풋이 짐작된다. 이 글씨들은 최근 강병인 씨의 작업이자 캘리그래퍼의 역할이기도 하다.

붓으로 쓴 글씨라면 서예가 먼저 떠오른다. 서예가 순수예술이라면 캘리그래피는 상업적인 서예이다. 그 글씨의 감성이 제품의 특성과 맞아 떨어져 구매 욕구를 자극했을 때 캘리그래피의 광고효과는 최대치가 된다. 꼭 붓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한글의 감성에 맞게 펜이나 갈대, 나뭇가지가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강병인 씨는 초등학교 시절 처음 붓을 잡아본 후론 틈날 때마다 붓을 잡고 놀았다. 묵향에 매료되어서였을까, 중학교 시절엔 영원히 먹과 함께 살겠다는 의미의 영묵永墨이라



는 호를 스스로 짓기도 했다. 그런 그가 왜 서예가가 되지 않고 디자이너가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서예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었다고 겸손해 한다. 광고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늘 붓을 잡았다. 이때부터 서예와 디자인의 접목을 통해 제품의 로고나 광고의 카피를 붓으로 쓴다면 더욱 광고효과가 크고 차별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디자인에 관련한 행사로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여행 중에도 유독 손으로 쓴 제품 디자인의 로고에 눈길이 갔다. 술, 책, 광고, 길거리사인 타이틀에 이르기까지 붓으로 쓴 글씨는 인쇄된 활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가 목말라 하던 작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붓으로 쓴 한글, 거기에 제품의 감성과 손 글씨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내는 것이었다. 일본 여행 후 그는 광고카피를 손 글씨로 하거나 제품의 로고 등을 붓으로 쓰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된다.

### 봄, 꽃, 꿈을 담는 그릇-한글

전문 캘리그래퍼로 발을 들여놓은 후 그의 첫 작업은 2002년 텔런트 김혜자가 모델로 나선 종교단체의 전도집회 포스터였다. 파란 하늘 아래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그가 쓴 글씨 '해바라기'는 꽃대를 길게 세우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는 듯하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강병인 씨는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갔다. 그 후 책의 표지디자인이나 상호 디자인 업계에서 손 글씨 의뢰 작업이 들어오고, 2006년에는 지나친 유행이라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쏟아졌다.

“2006년부터 캘리그래피를 광고에 활용하는 작업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캘리그래피





인터뷰 내내 그는 하얀 종이에 글씨를 쓰며 이야기를 했다. 늘 펜이나 붓을 손에 잡고 있는 그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그가 설명하며 써내려간 글씨체는 문자나 그림 이상의 어떤 느낌을 담고 있었다.

의 광고효과가 감성에 기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유행과 맞물리기도 했고 캘리그래피의 수요가 늘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스스로도 셀 수 없을 만큼 일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열풍이 아닌가 싶어 그 바람이 식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가 만들어지고 캘리그래피가 하나의 디자인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등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새 그는 방송 드라마의 제목과도 인연을 맺어 대왕세종, 연인, 엄마가 빨랐다 등 시청률 높은 드라마의 제호를 쓰는 인기 캘리그래퍼가 되었다. 제목만 보고도 드라마의 내용이나 성격이 전달되어야 하기에 그는 숫하게 시놉시스와 등장인물의 캐릭터 설명을 읽어댔다. 광고성 있는 작업들이라 짧게는 하루 만에 끝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보통 닷새 정도 파지를 만들어 내며 글씨를 쓴다.

캘리그래피는 붓으로 손 글씨를 쓴다고 해서 단지 동양적인 분위기만을 어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병인 씨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렇지만 붓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아름다움이 무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에 있는 만큼, 한 획 한 획 붓으로 굵다보면 한글은 인간 중심이고 그 안에 자연이 담겨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그래서일까, 그가 쓴 글씨들은 한 자 한 자가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인터뷰 내내 그는 하얀 종이에 글씨를 쓰며 이야기를 했다. 늘 펜이나 붓을 손에 잡고 있는 그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그가 설명하며 써내려간 글씨체는 문자나 그림 이상의 어떤 느낌을 담고 있었다. 캘리그래퍼가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가 쓴 봄, 꽃, 꿈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자니 순 우리말에는



그것의 형상도 함께 담겨 있다는 말의 의미가 다가왔다. 이를테면 그가 쓰는 봄, 꽃, 꿈은 꽃 봉우리가 터질 듯한 봄, 꽃대를 곧추세우며 막 피어나는 꽃, 꿈꾸는 듯한 꿈인 것이다.

### 한글이라는 이름의 희망

두 아이를 둔 아버지가기도 한 강병인 씨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컴퓨터와 핸드폰 때문에 손 글씨를 쓸 기회가 적어지는 요즘 세대들은 표준어의 필요성이나 한글의 고유성은 물론이고 손 글씨의 매력도 제대로 느낄 새가 없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해에 두어 차례 일일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캘리그래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글자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담아 한글을 써보라고 했더니 의외로 다양하게 표현해 내는 겁니다. 아이들도 재미있어라 하고, 물론 일회적인 수업이었지만 이런 작업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 교육의 기대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처럼 캘리그래피가 상업의 영역을 넘어 보다 많은 이들의 감성을 끌어내는 교육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 더할 바람이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캘리그래피가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 중에 서도를 배워 누구나 붓의 사용과 한자의 활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캘리그래피 협회가 발족되어



서예가와 시각 디자이너, 언어학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애쓰는 시기인지라 아직 교육의 차원으로 논하기는 이르지만 언젠가는 캘리그래피가 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날도 기대해 본다.

### 전시그룹 '글,책,말', 그의 작업실 '술통'

2007년 홍대 상상마당에서 열린 '글씨, 책에 말을 걸다'는 북 디자이너들과 함께 그가 주최한 전시회였다. 늘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작업해 오던 이들이 마음껏 우리 뜻대로 디자인을 해보자 하고 의기투합해 연 전시가 의외로 디자이너와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때 함께했던 전시자들이 모여 '글,책,말'이라는 전시그룹을 만들고, 올해도 역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홍대 앞 상상마당에서 '한글과 캘린더'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는 시인, 수필가들에게 좋은 글을 받아 손글씨와 디자인이 어우러진 일 년 열두 달 달력을 전시하는 자리이다. 작가들이 조탁해 놓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정서를 얼마나 글씨에 담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 전시와 더불어 또 하나의 행사가 진행 중인데, 한글을 통해 디지털 폰트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2,350자라는 것에 착안해 사회 저명인사와 일반인 2,350명에게서 낱글자 손글씨를 받아 폰트로 만들어 오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사이다. 한글 글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과 (주)윤디자인연구소가 함께 개최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손끝에서 시작된 감성이 소비자들과 예술 통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작업실 이름 '술통', 서예의 대가, 추사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만든 홈페이지 'www. sooltong.co.kr' 에서도 한글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기꺼이 전하려는 강병인 씨의 작업과 노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길을 걸거나 서점에 갈 때 거리의 광고 포스터나 책꽂이의 책표지들을 눈여겨보자. 그 안에 강병인 씨가 당신에게 전하는 작은 전언을 알아채길 바란다. 

글 김민정 기자





YOUNG ARTIST 2008

도시풍경,  
그 실상과  
가상의 충돌

나영민

나형민의 그림은 도시의 실상과 가상, 그 간극에 있다. 강렬하게 빛나는 파란 하늘과 모노톤으로 조율된 일상의 풍경이 이를 대변한다. 그의 손에 의해 모조된 도시의 초상은 좌절된 유토피아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망을 비추고 있다. 허구의 낙원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상실을 동시에 담는다. 낮익은 풍경과의 낯선 조우, 도시의 가상성은 그렇게 산수화의 도원경을 대신하며 우리의 현실을 돌아 보게 하는 힘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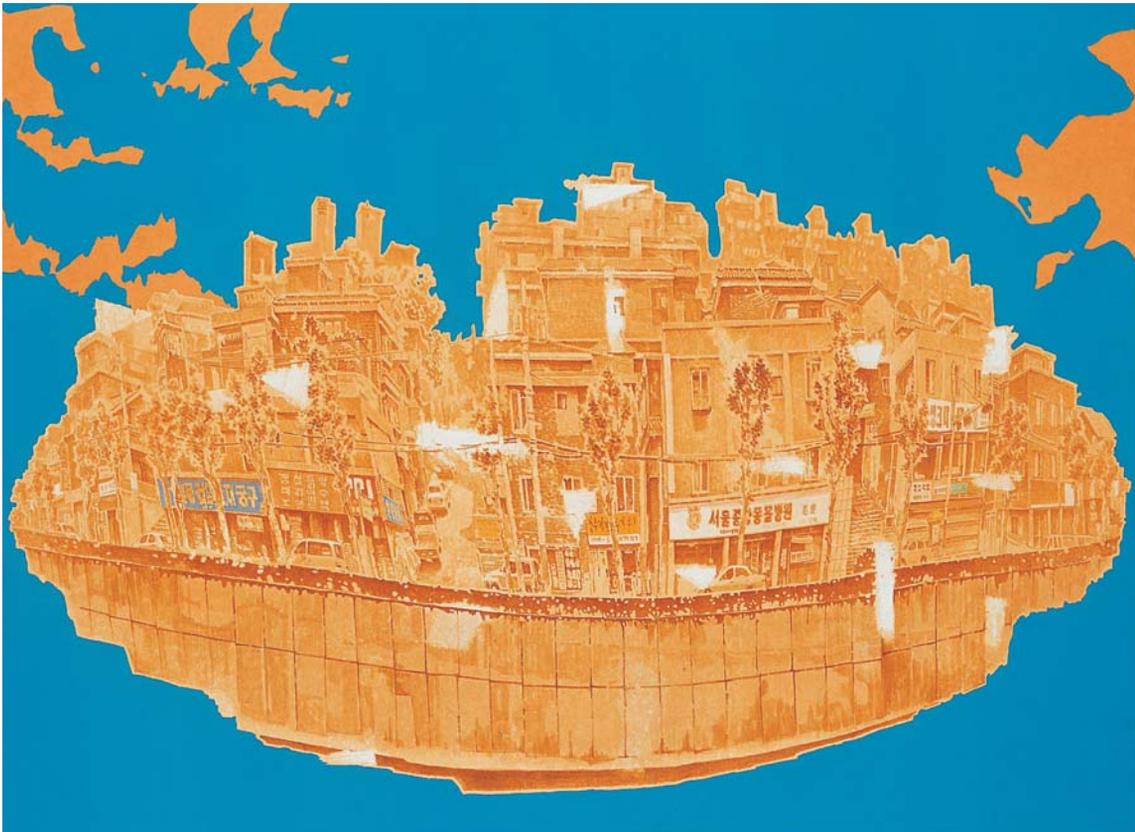
동양의 산수화가 당대의 우주자연, 삶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해명, 물음에 대한 대상화라면 그것은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공간이 바뀌었고 삶의 조건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선인들처럼 산수 속에서 살며 자연을 흠모하고 그곳으로 귀의하려는 욕구 대신에 도시 공간 속에서 적극적인 삶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연을 대신해 도시가 실질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고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자연은 도시의 대척점에 위치하면서 도시민들의 황폐하고 스산한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한 삶의 여유로움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자연 자체가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이미 우리의 삶은 도시에 걸 들어 있고 도시는 더욱 팽창하고 번성해가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시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모든 산수화, 풍경화에는 당대 사람들이 품은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들이 서려있다. 도시 공간 역시 현실 공간에 지상의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욕망 아래 가설되었다. 그러나 자연을 대신해 도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토피아를 실현해준다고 믿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도시풍경을 그리는 작가들에게 그 도시는 좌절된 유토피아의 꿈, 허구적인 낙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Where do I live? 한지에 토분, 채색 169×198cm,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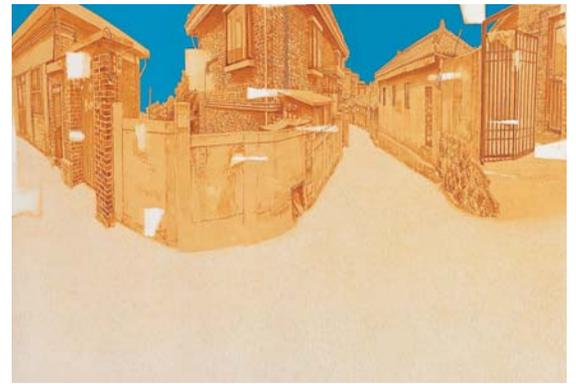


the Heavenly city, 한지에 토분, 채색 133×178cm, 2006

## 도시풍경, 그 실상과 가상의 충돌

나형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도시풍경을 그린다. 그 풍경은 특정한 장소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작가의 관념 속에 자리한 도시, 현실 풍경 이미지다. 그는 “도시란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풍경은 어떤 것일까.”를 그림 속에서 질문한다. 산수화가 우주자연의 이치를 규명하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사유하는 그림으로서 기능했다면 그에게 도시풍경화는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현재의 공간, 풍경을 관찰한다. 마치 ‘베를린천사의 시’란 영화의 첫 장면에서 천사가 도시를 내려다보듯, 고담시를 내려다보는 배트맨처럼 말이다. 혹은 변화한 파리를 거닐던 벤아민이나 도원경을 꿈꾸며 산수를 소묘하고 와유하던 옛 선비들의 동선을 연상시킨다. 그는 산수 대신 이곳의 현재 풍경을 다룬다. 그곳을 소묘하면서 떠오른 단상과 느낌을 이미지화한다. 그것은 생각의 도상화이자 느낌의 구조화다. 그는 이런 저런 풍경의 편린을 모아 자신이 보고 느꼈던 도시, 현실풍경에 대한 하나의 텍스트를 기술하고 ‘일러스트’ 한다.

그런데 그가 기술하는 이 도시의 현실풍경은 다소 비판적이다. 도시는 가짜 환상으로 모조된 곳이다. 수많은 이미지, 기호들로 뒤덮여있다. 그 이미지들은 일종의 유토피아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는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아토피아’에 다름 아니다. 도시는 영속성보다는 일시성의 연속이다. 그 시각적 콘텍스트는 연속적인 전체가 아닌 다양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콜라주로 파악된다. 혼돈과 일시성, 전체성을 함축하는 관료적 도시모델(통일된 전체)에 의한 지속적인 파괴와 자본가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에 의해 생성되는 비이성적이고 파편화된 곳, 그곳이 바로 이 도시공간이다.



do you know Where I am? 한지에 토분, 채색 120×160cm,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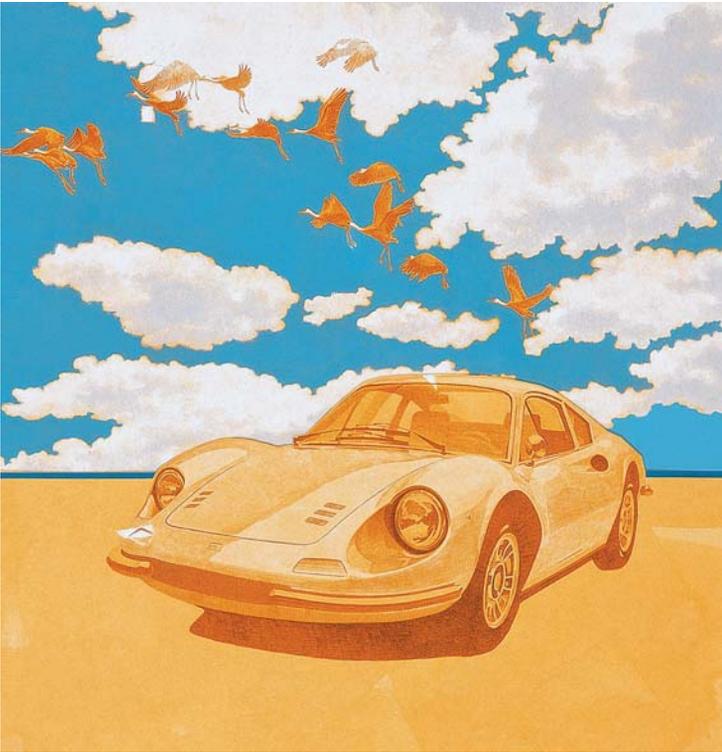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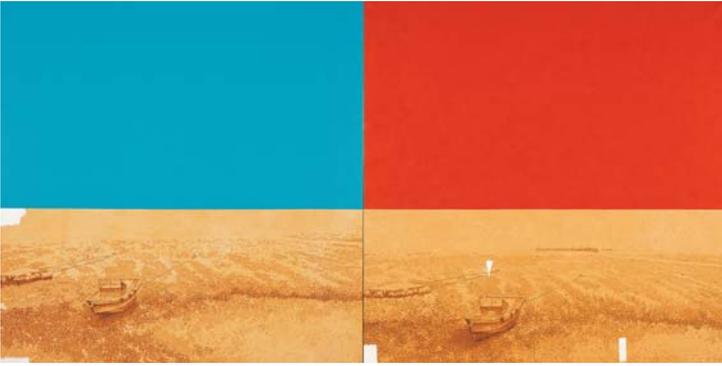


엇갈린 풍경, 한지에 토분, 채색 70×100cm, 2007



Run to the sky, 한지에 토분, 채색 155×115cm, 2008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왜 도시에 기거하고 있고 도시의 삶을 공경하는 것일까? 실제적인 도시의 모습이 아닌 이상화된 도시 이미지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효용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에 의해 결정되는 ‘교환가치’로서 도시의 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도시의 가상적 기호와 이미지들은 도시의 실상을 실체로부터 분리시키고, 그것들을 스크린 표면 위에 이상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도시의 현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즉, 오늘날 도시 이미지는 산수화의 관념화, 이상화와는 달리 리얼리티 자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구성되면서 실제적인 도시를 대체한다. 보다 더 현실감 있는 ‘하이퍼리얼리티’가 되어 현대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기거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향유의 대상이 되었다. 기의와 기표로서의 산수화의 전통적인 기호 의식은 붕괴되고 그 자리를 현대 도시의 이미지가 대체함으로써 산수화가 제시하였던 도원경의 역할을 도시의 가상성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노트中)



1 |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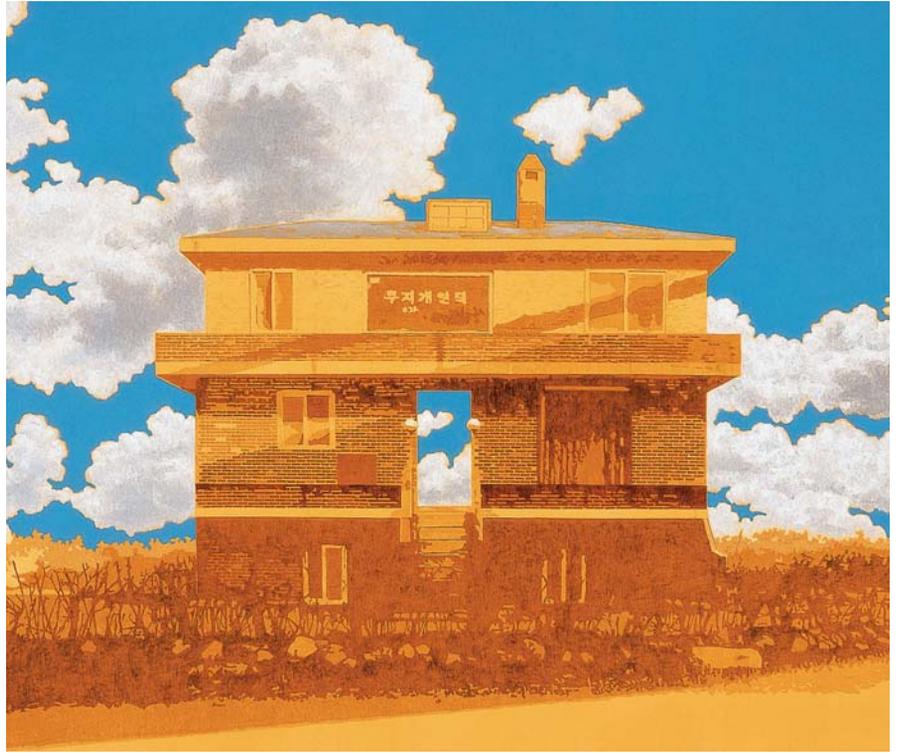
- 1\_ Somewhere only I know, 한지에 토분, 채색 90×180cm, 2008
- 2\_ Exit from somewhere, 한지에 토분, 채색 70×100cm, 2008
- 3\_ Wings of Desire 08, 한지에 토분, 채색 110×100cm, 2008

## 도시에 비친 현대인의 욕망

그림 속에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도시풍경이 등실 떠있다.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르고 더러 새들이 날아간다. 덧없이 사라져가는 순간의 모습 같기도 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작가는 구체적인, 특정한 장소를 그렸다고 하기 보다는 도시를 대변하는 혹은 현재의 이곳 풍경을 상징적 이미지로 연출하고 있다. 그 풍경은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달 혹은 비행접시처럼 떠있으며, 수평으로 자리한 풍경은 지극히 건조하고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렇게 떠있는 모습이 다소 위태롭거나 불안하고 찰나적이며 안타까운 생의 거주공간을 연상시킨다.

그런가하면 수평으로 자리한 적조한 풍경은 얼핏 평화롭고 안락한 환상을 제공한 것 같지만 결국 공허하고 출구 없는 도시풍경, 즉 현실풍경을 암시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일상적인 도시풍경, 한적한 어느 풍경을 잡아내고 있는 이 그림은 황토 빛으로 적셔져있다. 모퉁이를 공들여 발라나간 흔적은 황토색 물감을 수묵처럼 다루고 있다. 모노톤으로 조율된 현실풍경은 강렬하게 빛나는 파란 하늘과 어울리는 듯 꽤나 이질적으로 위치해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말이다.

빽빽한 건물과 간판, 박제처럼 자리한 나무가 몇 그루 서있는 적조한 풍경에는 인적이 없다. 사람이 지워진 풍경은 순간적으로 비현실감을 안긴다. 비근한 도시의 골목길과 계단, 주택단지, 그리고 빌딩과 간판들이 가득한 풍경은 조합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바닷가에 폐허처럼 방치된 허름한 건물도 등장한다. 그 건물은 '출입구' 라 쓰인 문구를 각기 달고 도열해있거나 '무지개언덕' 이라 쓰인 간판을 명패처럼 달고 있다. 그 문구는 도시 혹은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욕망하는 실체를 직접적으로 발설한다. 도시는 그런 문구와 이미지로 가득하다. 전국의 모든 도시의 입구에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란 문구를 기념비적으로 세워놓



4 | 5 | 6

4\_ 경계에 서다 I, 한지에 토분, 채색 115×160cm, 2008

5\_ 경계에 서다 II, 한지에 토분, 채색 130×160cm, 2008

6\_ 경계에 서다 - 무지개연덕, 한지에 토분, 채색 115×160cm, 2008

고 있다. 수사(레토릭)가 현실을 대체하고 허구가 실체를 뒤덮는다. 도시는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이미지다. 너무 많은 이미지들과 볼거리들이 도시 위로 흘러 넘친다. 아울러 도시에서는 무수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지칠 줄 모르는 욕망, 소비와 증식이 자가 발전적으로 생성되어 간다. 규모도 질서도 취향도 없는 이 '정체성 불명'의 모습이 현재 도시의 초상 같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도시란 공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난다.

도시를 거닐며 비로소 도시의 존재를 다시 본다. 작기는 도시를 어슬렁거린다. 그는 하염없이 종이를 소비하면서 도시가 버린 조각들을 주워 모은다. 도시의 모습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각, 상실과 아픔을 본다. 자신의 상처를 만난다. 발터 벤야민의 말대로 그

는 '냉마주이'다. 그러나 바로 그 냉마와 같은 것들 속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에 도시의 성질, 인간들의 본성, 우리의 시선 등이 어지러이 얽혀있다. 그는 얽혀있는 실타래를 그림으로 하나씩 풀어내고자 한다. 대도시라는 새로운 공간 그 자체는 벤야민의 지적처럼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이며, 더 나아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도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의 그림은 일종의 다큐멘터리이면서 동시에 분석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와 실제 몸으로 겪고 있는 도시 사이의 간극을 알고자 하는 욕구의 산물이다. 그가 본 서울(나아가 한국의 모든 공간)의 초상, 그렇게 발견하고 채득해서 재현한 이 그림에 들어와 박힌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고 낯익은 공간을 새삼 낯설게 바라보게 한다. 그 거리 사이에는 의문과 생경함이 서식한다.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을 추동시키고 흡입해내는 공간을,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공간의 이면까지도 다시 보게 한다. 그림의 힘은 그 자리에서 소리없이 부풀어 오른다. 

글 박영택 (미술평론가, 경기대 미술경영학 교수)

## 소설가 권지예의 '서울을 말한다'

도시가 무대의 세트라면  
사람들은 무대에 선 배우다.  
도시에 어울려 사는 시민들의 일상이  
모여 한 편의 극이 만들어진다.  
권지예는 시민, 즉 서울이라는 무대에  
적을 둔 배우들의 연기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사계절 행복한 축제의 도시,  
서울 사람들은 그림 같은 도시보다  
함께 웃고 울고 떠들 수 있는  
살아있는 무대를 바란다.



서울에 첫발을 디딘지 40년이 넘었다.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지방에서 지내다가 교육적령기가 되자 어머니는 우리들을 데리고 서울로 입성, 정착했다. 서울에 살기 시작한 우리 집은 고향에서는 '서울 띠기(서울댁)'로 통했다. 그 무렵 서울의 상징이라면 남산 팔각정과 창경원이 아니었을까. 고향 어른들은 서울에 정착한 우리 집을 거점으로 서울 나들이를 오곤 했다. 막내며느리인 어머니는 효도를 한다고 그 당시 거의 팔순에 가깝던 할아버지를 모셔 와서 맏딸인 나를 앞세우고 남산 팔각정을 다녀왔다. 나의 할아버지는 두루마기와 큰 갓을 쓰고 긴 곱방대를 물고 발뺨의 서울을 내려다보시며 연신 헛기침을 하셨다. 나는 남산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던 창경원이 훨씬 좋았다. 동물원도 함께 있어서 지루할 줄 몰랐다. 청량리였던 학교에서 왜 그리 먼 곳인 창경원으로 소풍을 갔을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뽕뽕거리던 거리의 전차와 달콤쌉싸름했던 사이다의 맛이다.

서울의 상징물이 남산 팔각정이라 믿었듯이, 각 도시에는 그 도시를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이 있다. 파리의 상징이 에펠탑이듯이 말이다. 내가 프랑스 파리로 가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벌써 17년 전. 밤에 드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들어와 금빛 조명이 찬란한 그 유명한 에펠탑을 보고는 '아, 여기가 파리구나!' 하고 감격에 겨웠던 것이 기억난다. 촌놈 서울 구경시키듯, 한국서 손님만 오면 데려간 곳도 에펠탑이었다. 그 당시 네 살짜리 꼬마였던 딸아이의 눈에는 그 철탑이 도대체 뭐길래 하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서울에 다녀러 왔을 때 버스를 타고 미니 에펠탑처럼 생긴, 송전탑이 쪽 늘어진 동네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 딸아이가 버스 속에서 소리쳤다.

“와아! 엄마, 에펠탑이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나라 짱이야! 프랑스보다 더 많잖아!”

그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다. 고층건물의 멋진 스카이라인, 깨끗한 도로,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조명과 조경. 내가 17년 전에 떠났던 그 서울이 아니다. 부잣집 아낙네가 때깔도 더 좋다고 하더니, 이제 먹고 살만 하니 서울의 외관도 훨씬 더 정리되고 번듯해졌다. 그 중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온 나의 눈에는 한강의 야경이 그 어떤 나라 강의 정경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라보 다리 위에서”란 시를 외우며 환상을 가졌던 파리의 센 강은 우리의 유현하고 장대한 한강에 비하면 작은 도랑이다. 초라한 미라보 다리보다 크고 웅대하고 찬란한 우리 한강의 다리들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가.

거기다 청계천의 복원으로 서울이란 도시는 꽤나 멋스럽고 낭만적인 풍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멋진 도시는 외형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파리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제 2의 고향이 되는 것은 그 도시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도시에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의 외형은 무대의 세트이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배우이기 때문이다. 에펠탑이 아무리 멋지다고 하더라도 햇빛 맑은 날, 샹드마르스 공원의 분수대 곁에서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다면, 몽마르트 언덕에 거리의 화가들이 없다면, 겨울 시청 광장에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없다면 그 도시는 죽은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이나 청계천에서 열리는 월드컵 응원전이나 촛불집회는 서울의 또 다른 인상적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 옛날, 남산 팔각정이나 창경원 같은 랜드마크적인 정적인 이미지 보다 그 도시에 어울려 사는 시민들의 역동적인 모습, 이벤트 자체가 그 도시의 이미지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올 여름에 딸아이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도우미로 참가했다. 계절별로 축제를 하는데 여름축제의 테마는 한강이었다고 한다. 나는 '한강의 사진전쯤 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한강의 포스에 푹 빠진 나는 그래도 그게 어디냐, 생각했다. 한강, 바라만 보아도 우리민족의 기개와 혼이 느껴지는 강. 사진만으로도 압도적일 수 있는 서울의 이미지. 그러나 밤늦게 노란 티셔츠를 입고 온 딸애의 얼굴은 꽃보다 더 밝았다.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공연도 보고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울려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한다. 비가 흩뿌리는 곳엔 날씨에도,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나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고 아름답게 어울려 춤을 추는 것이 마냥 벽차고 신기했던 모양이었다. 한강물인 아리수를 나눠주는 일을 했던 딸아이가 어느 틈에 외국인이나 남녀노소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바라보며 한여름 밤의 뜨거운 생명력을 뿜어냈던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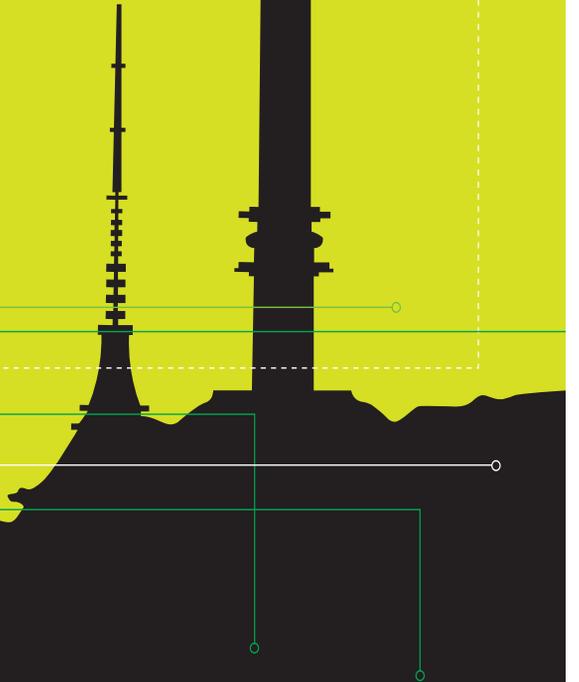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을 열고 신명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로 말하자면 연기에 몰이 오르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서울은 이제 아름다운 도시지만 행복한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글 권지연(소설가)

2008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 미술을 보는 마음의 눈

미술을 감상하는 눈은 마음에서 생긴다.  
미술관을 찾아 열심히 발품을 팔고, 부지런히  
해설을 들으며 심지어 작가의 비밀스런 작업실도  
엿볼 수 있다면 어느새 그 눈은 자연스레 생겨날 것이다.





미술관 산책 \_ 아르코미술관 \_ 사진 황현남

마음 속 본향을 찾는 특별한 산책  
유경희의 '미술관 산책' 이야기

미술관 투어를 맡게 되면서  
 관람객의 시선으로  
 작품을 대하는 법을 새로 배웠다.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돌아서자  
 오히려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미술 감상은 동시에 머리보다  
 가슴으로 해야 할 일이다.  
 흥미롭고도 진지한 자아성찰의 공간,  
 미술관에는 지금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이 함께 흐른다.



미술관의 새봄 \_ 서울시립미술관 \_ 사진 이달희

지난 봄 이 프로그램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재단 측의 제안에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작년 10월에 딱 한번 뮤지엄 투어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식은땀이 줄줄 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6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해야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지 어리둥절했고, 급기야 옆에서 지켜보던 담당자가 작품해설이 난해하다며 쉽게 설명해달라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여간 민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쓴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슨 인연인지 다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르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도 다시 초보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기 때문이다.

### 세밀하게 전시 들여다보기

우선 스스로가 전시를 아주 꼼꼼하고 간간하게 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전문가랍시고 치마 끝자락만 보아도 다 안다고 착각했고, 주마간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미술관 투어를 맡고 난 다음부터, 기존의 관람방식으로는 절대로 대중들에게 전시에 대해 흥미롭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전시의 취지와 주제에 집중하면서 작품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해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두어 차례 전시를 답사하는데, 도슨트의 설명을 반드시 참고한다. 대중들이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슨트의 설명을 상회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미술사의 상식을 이해시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작가의 작품경향이나 특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하나의 이름이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넓은 인문학적 맥락을 가져다가 얘기를 풀어나가기도 한다. 미술을 알려면 미술 자체의 담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위 학제간의 연구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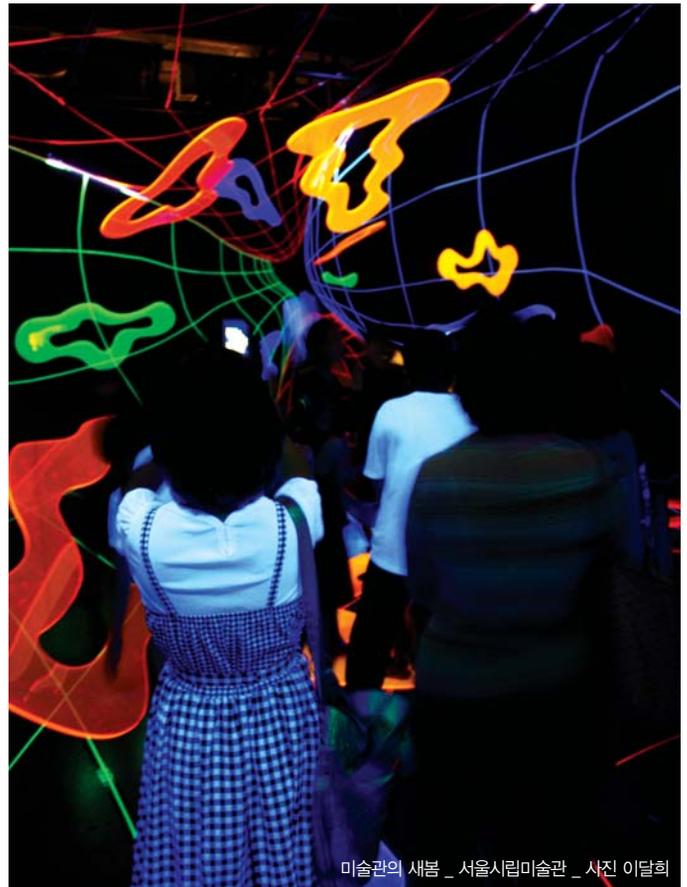
어쨌든 그렇게 세밀하게 전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전시 자체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아주 잘 보이기 시작했다. 전시의 취지와 목적이 전시 구성과 방식 속에 얼마나 잘 녹아있는지를 거의 육체적으로 느끼게 된다. 어떤 큐레이터가 기획하였는지, 그들이 가진 개념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그의 글 속에 그리고 출품작에 얼마만큼 잘 구현되었는지가 총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전시에 대한 총평을 가지고, 대중들과도 전시의 장단점을 진술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대중들은 예술작품의 주요한 수용자로서 더욱 질 좋은 전시를 보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는 등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 자아의 본성을 찾아가는 미술감상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은 그저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많이 하곤 한다. 사실 많이 본 자를 당해낼 자는 없다. 필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중 꾸준히 신청하여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여럿이다. 강제성 없는 이 프로그램에 저렇듯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웬만한 현대 작가와 미술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지는 취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식으로 미술관 투어를 열심히 수강하는 대중들은 아마 매우 간간하고 견고하게 미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력과 상상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술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흡수하는 것보다는, 미술품을 감상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자기 치유의 가장 육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 몸을 사용하며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술장르가 미술이지 않은가. 아마 관람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자아의 본성을 찾는 길로써 미술 감상을 사용하고 자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은 청각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라틴아메리카 거장전>을 관람한 적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참여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거의 장애인들만을 데리고 전시 설명을 했다. 사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특별한 소통방식에 합당한 작품설명을 준비해갔어야 했다. 수화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주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간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중에 수화통역가로서부터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번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필자 스스로의 무감각과 무성의한 태도가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투어가 끝난 후, 송구스런 마음을 전했지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유에서 한참이나 소외된 그들에게 이런 미술관 투어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미술관의 새봄 \_ 서울시립미술관 \_ 사진 이달희



미술관 신책 \_ 덕수궁미술관 \_ 사진 황현남



미술관 산책 \_ 일오미술관 \_ 사진 황현남

10월로 미술관 투어는 막을 내린다. 사실, 겨울이야말로 전시를 보기에 가장 로맨틱한 계절인데 아쉽게도 전시는 마감된다. 어쨌거나 매주 거의 정원을 넘어서는 인원이 동참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개선해나가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실버와 여성 전용의 구분이 무색할 만큼 참여자가 거의 여성이라는 점, 시간 관계상 강북 중심의 미술관 투어로 한정되어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소마드로잉센터 등을 방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출품 작가들과 기획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실버인구가 급증되어 가는 오늘, 그들이 좀더 용이하게 미술관 투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겠다. 외국 미술관에서 머리 희끗한 노인들이 작품을 아주 섬세한 태도로 관람하는 것에 적지 않은 찬사와 감탄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지금도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미술관 투어에 동참한 이들의 눈동자다. 그들의 눈동자는 흥미롭고도 진지하다.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인락이나 안위를 찾는 분들이 아닌, 마음속의 본향을 찾는 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그들과의 진화된 만남이 이어지길 수줍은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글 유경희(미술평론가)



### ‘미술관의 새봄’

일 시 \_ 10월 7일(화)  
주 제 \_ 윤석남 전  
탐방장소 \_ 아르코미술관

주 제 \_ 바우하우스 1919-1933 전  
탐방장소 \_ 금호미술관

### ‘미술관 산책’

일 시 \_ 10월 21일(화)  
주 제 \_ 푸른 빛의 울림  
: 환기재단 기획공모작전  
탐방장소 \_ 환기미술관

주 제 \_ 오늘의 작가전: 고명근  
탐방장소 \_ 김종영 미술관

※참가신청 및 문의 | ● 홈페이지 : [www.sfac.or.kr](http://www.sfac.or.kr) ● 전 화 : (02)3290-7044, 7047

# 내밀한 창작공간의 문을 열다

## 이정훈의 렛츠 고!아뜰리에

아뜰리에에는 작품이 잉태되는 곳이며, 작가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창작의 공간이다.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 있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여정을 지켜보며 작가와의 진솔한 대화가 시작된다. 직접적인 대화가 펼쳐지는 공간. 이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작품을 시간과 함께, 작가와 함께 만든다. 어느덧 작업실의 중심에서서.



김수영 작가 이뜰리에

우리들은 몰래 쓴 일기장이나 꼭꼭 숨겨두고자 하는 비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아뜰리에에는 작가에게 있어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들은 이곳에서 비밀일기를 써내려가듯 내밀하고도 치밀하게 창작에 몰두한다. 이러한 비밀의 공간인 아뜰리에를 방문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흥분과 함께 금기시 되는 공간을 허락받은 듯한 특별한 만족감을 준다.

### 화가들의 밀실로의 초대

갤러리에 잘 배치된 작품을 마주하는 전시 관람은 물론 즐거운 일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운이 좋아야 아주 짧게나마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전시 관람의 대부분은 단순한 감상 외에도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왜 그렸을까? 이런 작품은 어떻게 그려지고 만들어질까? 등 많은 질문을 남기지만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하듯, 이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작가의 작업실에 직접 가서 그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작가의 작업실을 찾는 일이란 낯은 보물지도를 읽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설혹 찾았다 하더라도 쉽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처럼 공개되기 힘든 비밀의 공간인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작가의 육성으로 작품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작업의 실제적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특별한 체험, 이것이 바로 '아뜰리에 탐방'의 매력이다.

### 상상력의 모태를 찾아서

작가의 작품 감상은 물론, 작업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며 궁금했던 작품제작의 시연을 지켜



성유진 작가실



난지도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잔다리에서 박형근 작가와 함께

보는 일은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마주할 때와는 또 다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작가들의 작업실은 서로 다른 그들의 작품만큼이나 제각각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난지창작소를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동창작공간의 특별함, 거대한 추상화를 전면 회화방식으로 구축해가는 홍수연의 미니멀한 작업실, 시냇가의 반짝임처럼 투명한 그의 작업과 잘 어울리는 깔끔한 이강욱의 작업실, 거대한 에리조나 사막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드로잉처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작은 거인 전수천 선생의 작업실까지 작가들이 고군분투하는 그들만의 창작공간은 그네들의 작업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뿔어져 나오는 창작에 대한 고민과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작업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은 방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느새 창작자에게 폭 빠져들게 한다. 작업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물론, 작품에 대한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언어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본 해석으로 지적만족 감도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참여 신청자들의 개인적인 궁금증과 작가의 솔직한 답변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 함께할 때 아뜰리에 투어는 방점을 찍게 된다. 찰칵! 하는 기념촬영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신청자들의 몫이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아뜰리에 탐방 신청을 위한 재빠른 클릭뿐이다. 

글 이정훈(미술평론가, 서울문화재단 축제지원팀)

## ‘렛츠고아뜰리에 I’

일 시\_ 10월 8일(수)  
주 제\_ 도시의 모든 기호를 지워라!  
: 익명의 도시, 아이덴티티의 상실  
탐방장소\_ 문형민 작가의 아뜰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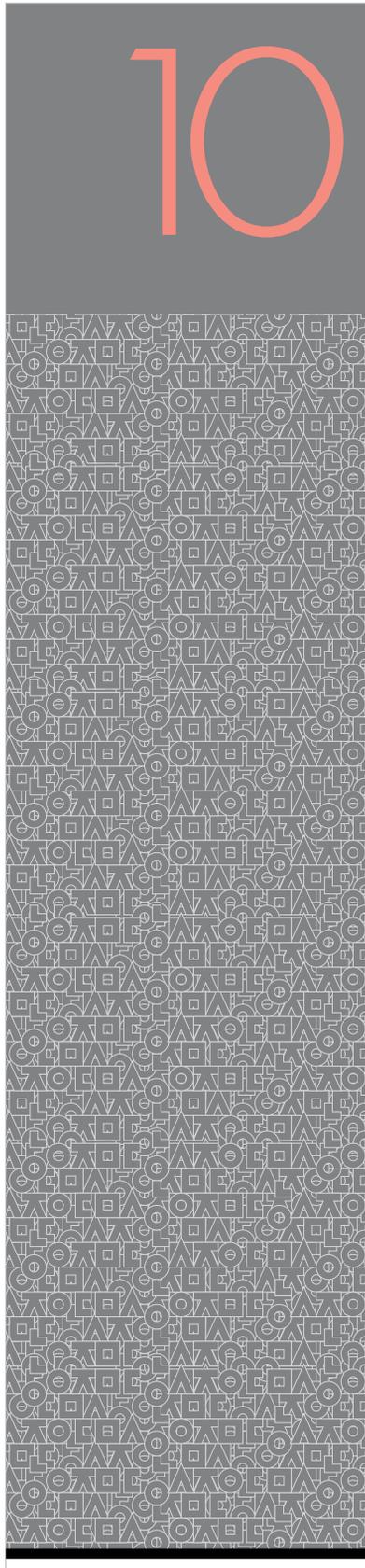
## ‘렛츠고아뜰리에 II’

일 시\_ 10월 22일(수)  
주 제\_ 영아티스트의 작업실 모두가  
갤러리가 되는 날!  
탐방장소\_ 난지창작소

### ※참가신청 및 문의

- 홈페이지 : [www.sfac.or.kr](http://www.sfac.or.kr)
- 전 화 : (02)3290-7044, 7047

# 서울문화재단 10월의 문화 캘린더



SUN

MON

TUE

- 시민문예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
- 청계창작스튜디오 공연정보
- 서울열린극장창동 공연정보

- 젊은예술가지원사업
-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 자치구문화공간활성화지원사업
-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5

- **| 문화체험강좌 |** 다가가는 궁궐학교 -서울 속 역사 산책과 생태 탐방 (~10/26)
- 청계천생태축제(10/3~10/5)
- 과거제재현행사
- 거리 미술전(10/3~10/5)

6

- **| 음악 |** 안재숙 해금 콘서트
- 아시아무대예술제(~10/9)
- 한국음식대전(~10/9)
- 서울 국제 음식 산업 박람회(~10/9)
- 서울 약령시 한의약 축제(~10/12)

7

- **| 합창 |** 서울코랄 창립10주년 기념음악회
- **| 국악(퓨전국악) |** 공연 (국악양상블(아라연) 환타지아 콘서트 - 서울에서 연 날리기)
- **| 국악실내악 |** 김승근 창작음악연주회
- **| 무용 |** 모녀전승시리즈 VI
- **| 탐방 ① |** 미술관의 새벽 (아르코미술관, 금호미술관)
- 서울아트마켓(~10/10)
- 성동도서관문화페스티벌(~10/8)
- 서울 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10/12)

12

- **| 문화의 날 기념 콘서트 '이사오 사사키 내한콘서트'**
- 세계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09/12~11/5)
- 한글 주간 행사(10/3~10/12)
- 의성 허준 축제(10/10~10/12)
- 가을맞이 구민 사랑 Big 콘서트
- 아차산 고구려 축제(10/10~10/12)
- 강동선사문화축제(10/10~10/12)
- 시민문화화마당

13

- **| 미술전시 |** 세상속의 나 (~11/3)
- OFF 대학로 페스티벌(~12/9)
- 서울무용제(~11/02)
- KOREA FOOD EXPO 2008(~10/19)
- 마니프 서울 국제 아트페어(10/3~10/13)

14

- **| 탐방 ⑤ |** 이것이 공공미술이다 (대학로,선유도 -조각공원! 조각무덤?)
- 서울 역사 축제(10/10~10/14)

19

- 서울 국제 공연 예술제(09.18~10.19)
- 찾아가는가을음악회

20

21

- **| 실내악 |** 창립 10주년 기념 제 11회 한국현대음악연구회 작곡발표회
- **| 국악실내악 |** 여울의 에피소드 III
- **| 탐방 ⑨ |** 미술관 나들이 (토탈미술관 김중영미술관)
- 국민왕사당제

26

- **| 탐방 ⑬ |** Seoul's Historic Walks (승례문에서 광화문 거리)
- **| 탐방 ⑭ |** 대학로 연극 투어 (서울연극센터 미)
- **| 탐방 ⑮ |** 홍대 앞 재발견 (홍대 상상마당 -홍대 일대 조망, 젊은 예술인과의 만남)
- 범음악제(~10.30)
- 청룡문화제

27

28

- **| 실내악 |** 21세기악회 63회/64회 정기작품발표회 (~10/29)

WED	THU	FRI	SAT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 50년사 발간</li> <li>  판화   2008, The 15th SPACE INTERNATIONAL PRINT BIENNIAL, SEOUL (~10/31)</li> <li>  서양화   류장복 개인전 : 화가의 일기-한강사생 (~10/13)</li> <li>  안전한 주거환경(강좌)   안전한 주거환경 바꾸기 (~10/31 매주 금요일)</li> <li>■ 서울열린극장 창동 개관4주년 기념_모던 프로젝트 (~10/13/5)</li> <li>■ 물레 아트 페스티벌 (~11/1)</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극   어떤 결혼식 (~10/12)</li> <li>  양화,설치,영상,미디어   보이는 소리 part2 展</li> <li>  국악실내악   비뻬be · 빙뻬being &lt;불교음악프로젝트 "이(理)와 사(事)" &gt; (~10/5)</li> <li>  양화   류승환 드로잉전(개인전) (~10/31)</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   Multi arts '모차르트 마술피리를 갤러리에서 만나다' (~11/2)</li> <li>■ 청계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정기프로젝트 '청계천 꿈에 물들다' (~10/5)</li> <li>■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개막식</li> <li>■ 청계천예술축제(~10/5)</li> <li>■ 서울 거리 예술축제(~10/5)</li> <li>■ 아시아송 페스티벌(~10/5)</li> <li>■ 세계 한강 줄타기대회(~10/4)</li> <li>■ 서울 드림 페스티벌(~10/5)</li> <li>■ 쌈지사운드페스티벌</li> <li>■ 삼각산축제</li> </ul>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무용   나방과 가야금</li> <li>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lt;엄마는 안가르쳐줘&gt; (~10/26)</li> <li>■ 세계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10/12)</li> <li>■ 세계불꽃축제</li> <li>■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페스티벌(~10/5)</li> <li>■ 정동문화축제(10/3~10/4)</li> <li>■ 은평 파발 축제(10/3~10/4)</li> <li>■ Festival in Festival (~10/6)</li> </ul>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좌/교육   2008 삶의 창을 여는 문학교실</li> <li>■ 탐방 ② 렛츠 고 아틀리에1 (도시의 모든 기호를 지워라! -문형민 작가 아틀리에)</li> <li>■ 장충단 추모제</li> <li>■ 사육신 추모 문화제(~10/9)</li> <li>■ 가을맞이 구민 사랑 Big 콘서트</li> </ul>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2008 문학을 들려준다 - '카버'다(~10/30)</li> <li>  국악관현악   2008 오페라 형식의 창작국악 칸타타 "아! 새중대왕 이시여"</li> <li>■ 탐방 ③ 박물관은 살아있다 (연세대 박물관)</li> <li>■ 새문길 박물관 축제(~10/14)</li> <li>■ 훈민정음반포재현행사</li> <li>■ 한글상상 2008 : 한글손글씨, 거리를 물들이다(~10/26)</li> </ul>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용   서울시민을 위한 우리춤 공연</li> <li>  현대무용   댄스씨어터 까두 우수 러퍼토리 공연(엘리베이터 살인사건) (~10/11)</li> <li>  사진,영상   방명주 개인전 '헬리오폴리스 Heliopolis 2008'</li> <li>  전통   Korea new music festival (~10/18)</li> <li>■ 탐방 ④ 근대 건축 찾기 (번영번영번영 -강남 일대)</li> <li>■ 원 드림 월드뮤직페스티벌(~10/12)</li> <li>■ 제11회 서울세계무용축제(~10/30)</li> <li>■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8(~10/30)</li> </ul>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물굿   도시속에 풍물굿판 20년 - 풍물패 터울림 풍물굿판 20주년 기념공연</li> <li>  실내악   대금 연주자 한충은 2집 발매 기념 공연 '해' (~10/12)</li> <li>■ 중랑문화예술축제(~10/12)</li> <li>■ Festival in Festival</li> </ul>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미지의 공간 - The final frontier (~10/21)</li> <li>  평면   습,Becoming wetlands 사진전 (~10/25)</li> <li>  전시(기타)   The Nature From Factory (~10/29)</li> <li>■ 탐방 ⑥ 캠퍼스 건축탐방 (고려대학교 캠퍼스)</li> </ul>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 ⑦ 박물관에 말 걸기 (강남구 논현동 -사전 자수 박물관)</li> <li>■ 남산축제(~10/19)</li> <li>■ 한강마포나루새우전축제(~10/17)</li> <li>■ 가을맞이구민사랑 Big concert</li> <li>■ 주민자치센터경연/전시회(10/14~10/16)</li> </ul>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 ⑧ 노름마치를 찾아서 (서울 곳의 현장)</li> <li>■ 5678 서울도시철도 가을문화 축제(~10/26)</li> <li>■ 이태원 지구촌 축제(~10/19)</li> <li>■ 창의아이디어페스티벌(~10/19)</li> <li>■ 아리수한마음축제(~10/19)</li> <li>■ 서대문신촌 어울림축제(~10/19)</li> </ul>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국제 판화 사진 아트페어 2008(~10/22)</li> <li>■ 다동 · 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9/20~10/18)</li> <li>■ 고종 · 명성후가례</li> <li>■ 낙성대인현제</li> <li>■ 로데오패션거리축제</li> <li>■ Festival in Festival (~10/19)</li> </ul>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화   조인호 제2회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는 자연'展 (~10/25)</li> <li>  보이스 퍼포먼스   보이스 퍼포먼스_ '두여자 이야기'(~11/2)</li> <li>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09/1/3)</li> <li>■ 탐방 ⑩ 렛츠 고 아틀리에 (영아티스트의 작업실 모두가 갤러리가 되는 날! -난지창작소)</li> <li>■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10/28)</li> </ul>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포먼스   2008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 @서울도심 (~10/25)</li> <li>■ 탐방 ⑪ 박물관 나들이 (연세대 박물관)</li> <li>■ 2008서울 한류페스티벌(~10/26)</li> </ul>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예   하이서울서예학술대회 및 서예퍼포먼스 및 가훈씨주기 (~10/25)</li> <li>■ 탐방 ⑫ 문학 혼의 발자취 (덕수궁 세종대왕동상)</li> <li>■ Puppet Musical 리틀동기 (~10/26)</li> <li>■ 장승배기 장승제</li> <li>■ Festival in Festival</li> </ul>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중무용   제 9회 조선왕조궁중연회 - 숙종 조 기해 진연의 재현</li> <li>  전통예술+관현악   꼭두각시놀음 박철지의 "페이루"</li> <li>■ 김치 사랑페스티벌(~10/26)</li> <li>■ 제8회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10/26)</li> <li>■ 황학동 중앙시장 주방기구 · 가구거리 한마음 축제(10/3~10/25)</li> <li>■ 트락 예술 무대(8/27~10/25)</li> <li>■ 시민문화한마당(~10/26)</li> <li>■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폐막식</li> </ul>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모여라 덩동댕' 공개방송</li> </ul>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국립 극장 페스티벌(09.05~10.30)</li> </ul>	<p>31</p>	



CREATIVE SEOUL NEWS

### '2008년 대한민국 공공행정 대상' 에서 '문화관광 및 축제부분' 대상 수상

(재)서울문화재단이 '2008년 대한민국 공공행정 대상' 에서 '문화관광 및 축제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한국 일보와 주간 한국이 주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쇄신 및 경영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고 공공행정 운영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제정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관광자원 및 축제 개발, 문화 활동 지원 및 개발, 지역 홍보를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해 노력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 및 축제부분' 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 기관 선정 및 시상식은 9월 4일 오후 2시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렸으며,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종합대상 3기관 등 9개 기관이 수상하였다.



### 서울시청 덮었던 '소망방울' 헤이그 간다

-건국60주년기념태극기중일부, 이준열사기념관으로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시청 본관 외벽에 설치되었던 고유번호 1번~6번 태극기가 들어간 소망방울이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에 영구 비치된다.

지난 8월30일~31일 서울광장에서는 '내 마음에 태극기를 담아 가세요' 소망방울 시민판매포행사가 열렸다. (재)서

울문화재단은 전시된 태극기가 들어간 소망방울을 개당 1,000원을 받고 배부했다. 이날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2,901개 태극기를 판매, 배포하여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시청사 모뉴먼트 행사를 기념하고 참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 중 고유번호 1~6번은 배포하지 않고 이준열사기념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준열사기념관은 이준열사가 순국 직전 장기 투숙했던 네덜란드 헤이그시 '드용호텔'을 현지교포 이기항, 송창주씨 부부가 사들인 뒤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 공간, 새로운 놀이터를 만난다**  
- '문화가 있는 놀이터'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참가  
(재)서울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 (이하 문화놀이터)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에 참가한다. 문화 놀이터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놀이공간을 재창조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놀이터 모형

전시, 놀이터 실물 전시, 문화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4개의 놀이터(거꾸로놀이터, 큐리어스스페이스, 미로 속 공간놀이터, 꼬끼리 놀이터)가 잠실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에 전시된다. 놀이터 모형은 기업·단체 참여전 공간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조경기장에는 문화놀이터 총 4개 모델이 실물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세계디자인놀이공간'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WDC·서울문화재단·현대건설의 협력으로 공동 진행된다. 더불어 어린이 및 가족 대상으로 놀이공간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문화놀이 프로그램이 총 4회 진행된다. 10월 15일, 22일 양일간 유아 대상의 '얼음공주 구출작전', 10월 26일에는 가족 대상의 '동화나라 친구를 도와주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02-3290-7045)로 문의 가능하다.

### 대학로 그리고 연극과 친구가 되자 - 대학로연극투어 10월 안내

한국연극 10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 중인 '대학로연극투어'가 10월에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대학로연극투어는 연극 관람, 백스테이지 투어, 배우 및 연출가와의 대화 등 연극과 관객이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10월 투어에도 배우 오지혜가 진행자로 나선다. 오는 10월 26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 예정인 이번 투어는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공연 중인 연극, '쉬어 매드니스' 관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 ([www.e-stc.or.kr](http://www.e-stc.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참가 이유, 참가 인원 및 동반인 신변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선정자는 10월 14일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CREATIVE SEOUL NEWS

### 청계천, 꿈에 물들다

#### -청계창작스튜디오 정기기획전 열려

10월 3일부터 5일, 총 3일간 청계천 12개다리 주변 및 청계창작스튜디오 1층 갤러리에서는 청계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정기프로젝트, '청계천, 꿈에 물들다' 가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은 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주 작가, 관객,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청계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로, 청계천 도심문화의 거점이 되기를 꿈꾼다.

이번 프로젝트는 입주작가의 청계탐험 프로젝트와 학술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김영미는 청계천 새벽다리(광장시장) 주변 간이부스에서 청계천을 찾는 상인과 소비자가 들려주는 청계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디오 네비게이션과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광장시장 체험기인 오감탐험대를 진행한다. 청계천 관수교 주변에서는 남지 외 20여명의 작가가 용도 폐기된 공간의 조형물을 설치해 '청계천 훑쳐보기, 청계천 다시보기' 라는 주제로 공감탐험을 시도한다. 이부록과 안지미는 시간탐험대라는 주제로 탐사를 통해 사라진 시공간의 기억들을 진술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전시와 함께 진행될 학술세미나는 "서울의 공공미술과 생태미술(가안)"을 주제로 월 25일(목), 오후 2시~5시까지 열린다. 청계창작스튜디오 1층 갤러리에서 전승보, 박삼철, 이영철, 유진상, 기타가와 프람(일본)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 북카페 '책사랑', '책茶방', 10월에도 다양한 행사 열려

####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창작프로그램 진행 예정

10월에도 (재)서울문화재단 1층 북카페 '책사랑' 과 '책茶방'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10월 8일 저녁 7시, '책사랑' 에서 시민문화예술강좌 '우리시대 작가들을 일곱 가지 빛깔로 만나보다' 의 여섯 번째 주인공, 함성호와의 만남의 시간이 마련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그간 작가들과의 만남으로 시민들을 문학의 다양한 세계로 안내했다. 여섯 번째 작가인 함성호는 시인이자 건축가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시적인 공간과 시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강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또는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seoulbookcafe>)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이메일(jeungpill@sf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책다방에서는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개천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진행된다. 6월~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월 다른 주제로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10월 22일에는 용두동 소재 구립 햇살어린이집이 참여하며,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으로 극장 책(무대와 같은 형태의 틀이 있고 그 주변을 꾸미는 형태)을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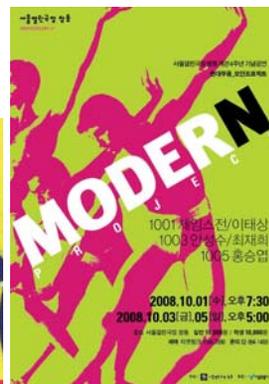
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중견안무가로는 제임스전(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안성수(픽업그룹), 홍승엽(댄스씨어터 온)이 참여하며, 신진안무가로는 '2008 젊은 예술가지원프로그램 나트(NArT)'의 최종 선정자인 신예무용가 이태상, 최재희가 참여할 예정이다. 10월 1일 제임스 전의 <MASK>와 이태상의 <소극의 의미>를 시작으로 안성수의 미완성 신작 <장미>와 최재희의 <소통>이 10월 3일 오후 5시 무대에 오르며, 10월 5일 오후 5시에는 홍승엽의 <달보는 개>, <테라뷰>가 공연될 예정이다.

12일에는 문화의 날을 기념해 '이사오 사사키 내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는 Puppet Musical 리틀덴싱이 공연된다. 네덜란드의 Silver Award와 프랑스의 Prix de Treize에 빛나는 네덜란드 출신 작가 린데르트의 동화로, 가족애와 모험심 등의 교훈을 담아 꼬마 당나귀가 하루 동안 겪는 에피소드로 꾸며진다. 이어 29일에는 EBS '모여라 덩동땡' 공개방송이 열린다. TV에서만 보던 '모여라 덩동땡'의 인기 캐릭터를 직접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방청권은 사전에 EB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열린극장 창동 (02-994-1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열린극장 창동, 10월에도 다양한 공연마련 -개관4주년 기념 '모던 프로젝트' 등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10월에도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10월 1, 3, 5일에는 개관 4주년 기념 '모던 프로젝트'가 무대에 오른다. "5인의 현대무용가 초대전"이라는 부제로 진



거리예술의 낭만이 서울에 흐릅니다

# 서울거리아티스트

Seoul  
Street Artists

## 온라인 사진공모전

<http://cafe.naver.com/seoulstreetartist>

### 서울거리아티스트는

오디션을 통과한 거리예술가에게 '거리아티스트' 자격을 부여하고, 서울의 주요거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예술문화의 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거리속의 무대"를 위한 서울의 첫걸음입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온라인 사진공모전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주요거리(청계천 외)에서 거리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거리아티스트의 우수한 사진을 담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거리아티스트 온라인 사진공모전"을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 서울거리아티스트
  - 서울거리아티스트의 일상 : 서울거리아티스트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담은 사진
  - 공연 : 서울거리아티스트의 공연 이미지를 담은 사진
  - 문화행사(서울시 및 문화재단 행사) : 축제 중 서울거리아티스트 소재로 한 사진

**응모자격** ● 제한 없음(대한민국 국민 및 서울을 사랑하는 누구나 응모가능)

### 작품규격 및 내용

- 1인당 2작품 이내로 출품 가능
- 스토리텔링(연작) 형식 및 단 사진(스틸컷 한 장) 모두 출품 가능
- \* 스토리텔링 : 한 장의 스틸컷이 아닌, 하나의 주제(이야기)를 정하여 다양한 사진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하여 이야기 하듯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 촬영날짜 제한 : 2005년 10월 이후 촬영한 사진에 한함
- 이날로그 사진 및 디지털 사진 모두 가능
- 이날로그 작품규격
- 원본필름 및 사진 스캔 후 출품
- \* 입상 후 원본파일 제출 필수
- 디지털 작품규격
- JPEG 파일로 사이즈 1,012 Pixel 이하(온라인 업로드 시)/400만 화소 이상 과도한 후보정은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 입상 후 원본파일은 2MB이상 되어야 함(동상 이상 입상자에 한하며, 향후 입상자들의 앨범제작 및 사진전 기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접수마감** ● 2008년 11월 30일

**출품방법** ● 공식카페 게시판 온라인 접수(<http://cafe.naver.com/seoulstreetartist/435>)  
\* 반드시 사진 업로드와 함께 신청서 파일도 같이 올려 주셔야 합니다.

### 심사 및 발표

- 심사기간 : 2008년 12월 초
- 입상발표 : 2008년 12월 15일 / 온라인카페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 입상혜택 : 상금 및 상장, 입상자 사진책, 사진전 기회 제공

### 시상내역(총 시상금 490만원)

- 대상 1명 : 상금 100만원
- 금상 2명 : 상금 50만원
- 은상 3명 : 상금 30만원
- 동상 5명 : 상금 20만원
- 장려상 10명 : 상금 10만원

### 참고사항

- 타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합성사진 입상에서 제외되며 발표작에 한합니다.
- 입상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서울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입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상자 상금 및 상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서울거리아티스트 인터넷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seoulstreetartist>





경계에 서다-무지개언덕, 한지에 토분, 채색 115×160cm, 2008

문화+서울

#### 독자의견란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서울문화예술총서 시리즈 중 1권을 보내드립니다.

1. 어떤 경로를 통해 문화+서울을 접하게 되었나요?
2.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3. 문화+서울이 취재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주소 변경 시 업서나 이메일(smlee@sfac.or.kr)  
또는 전화(02-3290-7067)로 연락바랍니다.



[www.sfac.or.kr](http://www.sfac.or.kr)

#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가을

## 10.3-10.25

서울의 가을 축제로 불린다

[www.hiseoulfest.org](http://www.hiseoulfest.org)

서울광장, 청계광장, 대학로 및 서울전역



개막행사  
10.3  
청계광장



축제 기념공연  
10.4~ 10.19  
청계광장,  
서울광장



하이서울  
축제 정보센터



폐막행사  
10.25  
서울광장

2008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제11회 서울세계무용축제 | 2008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 제29회 서울무용제 | 2008 D.FESTA | 짬지 사운드 페스티벌 | 2008 윈드림 월드뮤직페스티벌 | 물레아트페스티벌 |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 서울드림페스티벌 | 2008 대한민국 라이브뮤직 페스티벌 | 2008 아시아송페스티벌 | 범음악제 | 아시아무대예술제 | 서울거리예술축제 | 5678 서울도시철도 가을문화축제 | 제7회 OFF 대학로 페스티벌 | 서울디자인올림픽 | 제5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 제14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 2008 청계천예술축제 | 2008 서울 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 | 제2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미디어대전 | 2008 서울아트마켓 | 청계천 수변 패션 웨이브 2008 | KOREA FOOD EXPO 2008 | 서울세계꽃축제 | 2008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 2008 한국음식대전 | 2008 대한민국 축산브랜드 페스티벌 | 제2회 세계한강줄타기대회 | 2008 김치사랑페스티벌 | 청계천 생태축제 | 창의아이디어페스티벌 | 정동문화축제 | 제3회 남산축제 | 제10회 중랑문화예술축제 | 은평파발축제 | 이태원지구촌축제 | 서대문신촌어울림축제 | 2008시민문화한마당 | 제7회 서울역새축제 | 2008 남산골 전통축제 | 2008 한글날 기념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 | 제15회 조선시대과거제 재현행사 | 낙성대 인헌제 | 제10회 의성 허준축제 | 제12회 삼각산 축제 | 제14회 서울역령시 한의약문화축제 | 2008 아차산고구려축제 | 2008 한글주간행사 | 고종 · 명성후 가례 | 사육신 추모 문화제 | 장승배기 장승제 | 새문길 박물관 축제 | 청룡문화제 | 음식문화 가을대축제 | 트락 예술무대 | 제1회 드림씨티성동도서관문화페스티벌 | 제113주기 장충단추모제향 | 주방기구 · 가구거리 한마음축제 | 2008 목동 로테오 패션거리 축제 | 찾아가는 가을 음악회 |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 | 2008 공민왕사당제 | 아리수 한마음 문화축제 | 제16회 거리미술전 | 제6회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 및 작품전시회 | 한글상상 2008 : 한글손글씨, 거리를 물들이다 | 제13회 강동선사문화축제 | 2008서울 한류페스티벌



#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08.10 | Vol. 20

